ALTERNATIVE CHRISTIAN EDUCATION PRACTICES FOR, AND HOSPITABLE PASTORAL PERSPECTIVE ON, THE OLD GENERATION: THE CASE OF SHINAM CHURCH IN KOREA

A Practical Research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Jae Ho Ok

May 2020

This Practical Research Project completed by

Jae Ho Ok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th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Namjoong Kim, Chairperson
Hyunsun Oh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20

ABSTRACT

ALTERNATIVE CHRISTIAN EDUCATION PRACTICES FOR,
AND HOSPITABLE PASTORAL PERSPECTIVE ON, THE OLD GENERATION:
THE CASE OF SHINAM CHURCH IN KOREA

by

Jae Ho Ok

Korean society has entered a period of aging, with the proportion of people aged 65 or older accounting for more than 7 percent of its population. This reality is reflected in churches as well.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old generation in the Shinam Church in P.R.O.K (S church) continues to grow. Under these circumstances, I have come to think about how to minister to the old generation.

Above all, I became interested in the life, faith life, and faith education experienced by the old generation of the S church from a pastoral perspective. This enabled me to critically examine the kind of Christian education that S Church has offered the old generation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Therefore, I did qualitative research to see how S Church conducted Educational ministry for the old generation. The question for qualitative research was, "What kind of life, Christian education, and religious life does S church's old generation experience in church life?" I investigated this question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0 study participants. Through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materials of qualitative research, I discovered the problem of alienation in the lives and religious lives of the S Church's older generation, which has become a subaltern inside the church. I also learned that the content of their desired Christian

education is biblical education and that they want their lives to be ego-integrated, consistent with faith.

In this project, I proposed the need for alternative Christian education practices to suit the needs of the old generation, and the need for a hospitable pastoral perspective on the old generation; in particular, I suggested Bible education and writing to promote ego-integration. The shifts I propose will help the old generation overcome the conflicts and crises they currently experience as subalterns within the church.

KEYWORDS: The Old Generation, Alienation, Subaltern, Hospitality, Ego-integration

국문 초록

노년세대를 위한 대안적 신앙교육 실천들과 환대적 목회 관점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의 신암교회를 중심으로

by

Jae ho Ok

한국 사회는 65 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구성원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증가 현상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내가 목회하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신암교회(이하 S 교회) 구성원도 노년세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노년세대를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 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무엇보다 교육 목회 측면에서 S 교회의 노년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삶, 신앙생활 그리고 신앙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관심은 S 교회 노년세대교육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나는 S 교회 노년세대 교육 목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질적 연구를 하였다. 질적 연구를 위한 질문은 “S 교회 노년세대는 교회생활에서 어떤 삶, 신앙교육, 신앙생활을 경험하고 있을까?” 이다. 이 질문은 10 명의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질적 연구의 자료들을 분석하는 과정과 결과에서 나는 S 교회 노년세대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는 소외의 문제, 즉 교회 안에서 서발턴이 되어버린 노년세대를 발견했다. 또 그들이 바라는 신앙교육의 내용은 성서교육이며 그들의 삶이 신앙과 일치하는 자아 통합적 삶을 영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의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노년세대 교육 목회 관점과 노년세대 신앙교육의 실천 방안들로써 노년세대를 향한

환대신학적 목회 관점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노년세대를 위한 성서교육, 그리고 자아 통합을 위한 글쓰기를 제시하였다.

KEYWORDS: 노년세대, 소외, 서발턴, 환대, 자아 통합

SUMMARY

As Korean society faces an era of aging, Korean churches need pastoral care for members in the old generation. As my church, S, has 83 years of history, a long history for a Korean Christian church, the old generation accounts for a large proportion of members. Therefore, I inevitably paid attention to the church life and Christian education of these older people. From a practical theological point of view, I began to think about how the old generation, who retired from posts in the church, experience church life and about how the current pastor should offer pastoral care to those who are in the final stages of their lives.

In particular, I researched what the old generation is experiencing at Hope University, a Christian education program for the old generation of S Church; through in-depth interviews, a method of qualitative research, I examined what the program of the Hope University means to them.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data of in-depth interviews, I researched critically how the Hope University education has progressed over the years.

I arrived at three conclusions after conducting the in-depth interviews and analyzing their content. First, the old generation is experiencing a sense of alienation and loss within the church after retirement. They used to occupy the heart of the church community, taking on a central role in the church and serving in many ways; now that they are older and retired, they find themselves left out in the church, as subalterns in the community. They fail to mingle with the younger generation and have become outsiders who experience conflict and loss of status.

Second, the old generation wished that the content of the existing Hope University program would be more religious and biblical. In past years, the curriculum covered topics that could be learned in general social welfare centers, cultural centers, or on TV or internet, such as

health, current affairs, and popular culture. Instead, the old generation wants Christian education inside the church to be composed of biblical or religious content.

Third, the old generation expressed a desire to end their lives in a meaningful and beautiful manner. They wanted to be mature believers whose faith and life were consistent, and to be remembered by their children and descendants as believers in ego-integration. They wanted to leave a legacy of faith for the church.

I hope this project will help the old generation live a full life within the church and dissolve their sense of alienation and loss. To this end, I suggest the church and the pastor should direct pastoral work for the old generation from a hospitality theological point of view. In addition, I emphasize that education within the church should center on biblical knowledge and Christian faith, and propose a Bible school for the old generation as one form of practical program. Finally, as another practical program, I suggest autobiographical writing that helps the old generation review the beauty and faith inherent in their life stories; this ego-integrated writing will help them discover that, in their time on earth, they lived meaningfully, integrating life and faith.

This project should ensure that the old generation experiences the church as a respectful body that welcomes them into the community of Christ, not as a place that treats them as outsiders or subaltern. In addition, I hope that the church and pastor will be able to establish a new direction for and perspective on pastoral work, so that the old generation can experience Bible-centered Christian education and live a life of ego-integration as healthy believers.

국문요약

한국 사회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는 교회 안의 노년세대에 대해 목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다. 내가 목회하는 S 교회는 83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교회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교회의 구성원 역시 노년세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나는 이 노년세대의 교회 생활과 신앙교육에 대해 관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의 직분에서 은퇴한 노년세대가 경험하는 교회 생활은 어떠한지, 생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노년세대를 위해 목회자는 어떠한 실천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목회적 돌봄을 해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나는 이 고민을 구체화하기 위해 S 교회의 노년세대의 신앙교육 프로그램인 희망대학에서 노년세대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경험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질적 연구의 방법인 심층 면담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심층 면담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희망대학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프로젝트는 노년세대와 심층 면담을 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노년세대가 은퇴 이후에 교회 안에서 소외와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부분에 봉사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중심부에서 위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노년세대가 되고 은퇴하면서부터 교회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로 밀려나 소외를 당하는, 교회 안에서 서발턴이 되어버린 노년세대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교회의 젊은 세대들과 어울리지 못하여 갈등을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상실한 주변인이 된 것이다.

둘째, 노년세대를 위해 S 교회에서는 희망대학이라는 신앙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노년세대의 생각을 들어보았을 때, 그들은 기존의 희망대학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좀 더 신앙적이고 성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

동안 진행되었던 희망대학의 프로그램의 내용들은 일반 사회복지관이나 문화센터, TV 나 인터넷에서 경험하고 들을 수 있는 내용들, 즉 건강이나 시사, 상식 문화 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노년세대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싶은 신앙교육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들보다 성서나 신앙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노년세대는 자신들의 삶이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마무리 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었다. 노년세대는 그들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자신을 자아 통합의 신앙인으로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기억해주기를 바랐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본이 되고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 줄 수 있는 존재로 남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교회 안에서 서발턴이 되어버린 노년세대가 그들이 느끼는 현상인 소외와 상실을 뛰어넘어 교회 안에서 다시 존재감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는 환대 신학적 관점으로 노년세대를 위한 목회의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 노년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내용은 기독교 신앙과 교육의 본질인 성서에 중심을 둔 성서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며, 그 실천적 프로그램으로 노년세대를 위한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으로 마무리하기를 소망하는 노년세대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자서전쓰기, 삶과 신앙이 통합된 아름다운 신앙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자아 통합적 글쓰기를 또 하나의 실천적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교회 안의 노년세대를 교회가 환대하며, 교회의 주변인, 서발턴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존중 받고 환영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한다. 또 이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도록 성서 중심의 신앙교육을 경험하고, 노년세대가 자아

통합의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와 목회자는 그 방향성과 목회관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I
서론 (Introduction)

A. 문제제기 (Meaning and Purpose of Study)

나는 83 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S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S 교회는 교회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출석한 오래된 성도들이 많고, 노년세대의 비율이 교인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S 교회는 제직원의 정년을 70 세로 정하고 있는데,[1] 나는 교회에서 정한 정년이 되어 퇴임한 세대를 이 프로젝트에서 노년세대로 정의하였다. 교회에서 노년세대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은 대다수의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는 고령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장로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교인 수에 대한 통계 발표에서도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등 교회 내 중직자 비율도 3~5% 증가하면서 한국 교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노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렇게 교회 안에 노년세대가 증가하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나는 노년세대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고민하는 중에 노년세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신앙교육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에 대한 질문이 생겼다.

또, 교인들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년세대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위한 목회와 신앙교육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관심과 질문을 기반으로 노년세대를 위한 목회의 선행연구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국회전자도서관에서 '목회'와 '노인'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199 편의 학위논문에 대해 주제별 전수조사를 해보았다. 조사 결과 199 편의 논문 중 노인복지에 관련한 논문이 32%(63 편), 목회상담에 관련한 논문이 19%(37 편), 노인대학에 관련한 논문이 10%(20 편), 교회성장에 관련한 논문이 9%(18 편), 노인교육에 관련한 논문이 9%(17 편), 농촌노인에 관련한 논문이 6%(11 편), 노인심리에 관련한 논문이 4%(8 편), 기타 13%(25 편)으로 나타났다.[3]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복지 관련 논문들은 대부분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교회의 노인복지사업 연계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

[1] 기장 헌법 정치 제 12 조,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2013), 112. 교회의

[2] 정창일 and 박재찬, "교회의 허리 '3040 세례교인' 급감,"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last modified November, 8, 201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13037.

[3] 이 조사는 본인이 직접 국회전자도서관에서 검색하여 진행하였다. 국회전자도서관 (https://www.nanet.go.kr) 참조.

주된 관심들은 목회상담을 통한 노년세대의 신앙생활과 목회적 돌봄, 각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대학에 대한 평가와 방향성 그리고 교회성장을 위한 노인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년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대표적인 예는 노인대학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다. 교회마다 다양한 이름들로 불려지는 이 노인대학 프로그램은 교회 안과 밖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앙교육과 교양, 취미, 일반상식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S 교회 역시, 70 세 이상의 노년세대를 대상으로 '희망대학'이라는 신앙교육 및 친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4] 나는 S 교회의 희망대학이라는 대표적인 노년세대 신앙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S 교회 노년세대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이 경험 속에서 어떤 신앙적인 가르침을 얻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었다. 또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노년세대를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었다.

그리하여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노년세대를 위해서 어떤 목회적 관점과 교육 목회적 방향을 세워야 할지, 그리고 노년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을 위해 어떤 실천적 대안과 방법이 있을지 모색해보았다.

B. 논지 (Thesis)

국제연합(UN)이 정한 바에 따라 65 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라고 부르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보면 2014 년 기준, 한국의 65 세 이상 노인인구는 이미 12%를 넘어섰으며, 2025 년에는 전체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화 사회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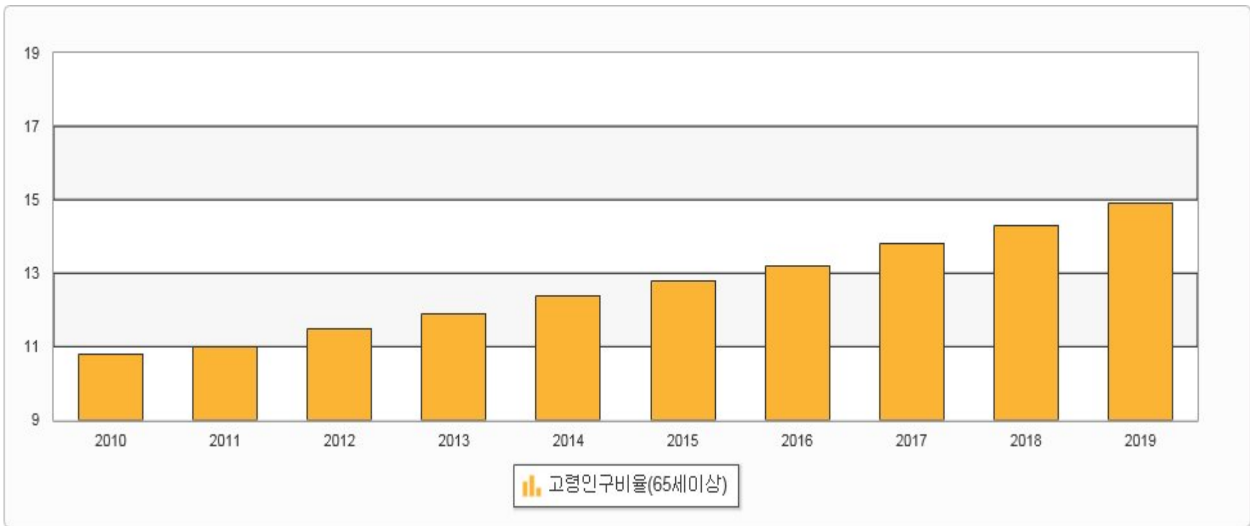
[4] S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신앙교육 프로그램으로 1980 년부터 운영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교회 주변의 노인들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노인대학과는 달리 S 교회 교인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는 특징을 가진다.

[5] "고령화사회," 두산백과, accessed December 17, 2019,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49722.

〈표 1.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 비율 1〉[6]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고령인구비율 (65세이상)(%)	10.8	11	11.5	11.9	12.4	12.8	13.2	13.8	14.3	14.9

〈표 2.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 비율 2〉



〈표 3. 대한민국 연도별 노령화 지수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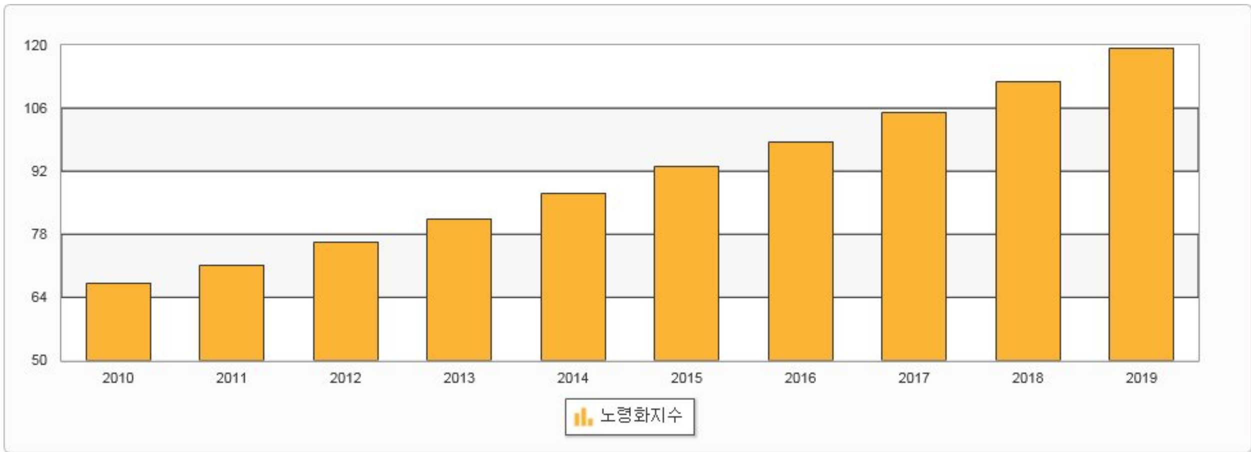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노령화지수 (유소년인구 1백명당)	67.2	71	76.1	81.5	87	93	98.4	105.1	111.9	119.4

* 노령화 지수 : 유소년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이상)의 비율
노령화 지수 = (65세이상인구/0~14세인구) X 100

[6] "대한민국 100 대 지표 고령인구비율" 통계청, accessed November 19, 2019, http://kosis.kr/conts/nsportalStats/nsportalStats_0102Body.jsp;jsessionid=12slfcaG1wh8LmX97SE1hyouQGJ3UGAh1dypiTsRx8Mrnr1m4C37lqPaGnhOkmQK.STAT_SIGA2_servlet_engine4?menuId=10&NUM=1014&cntUpdat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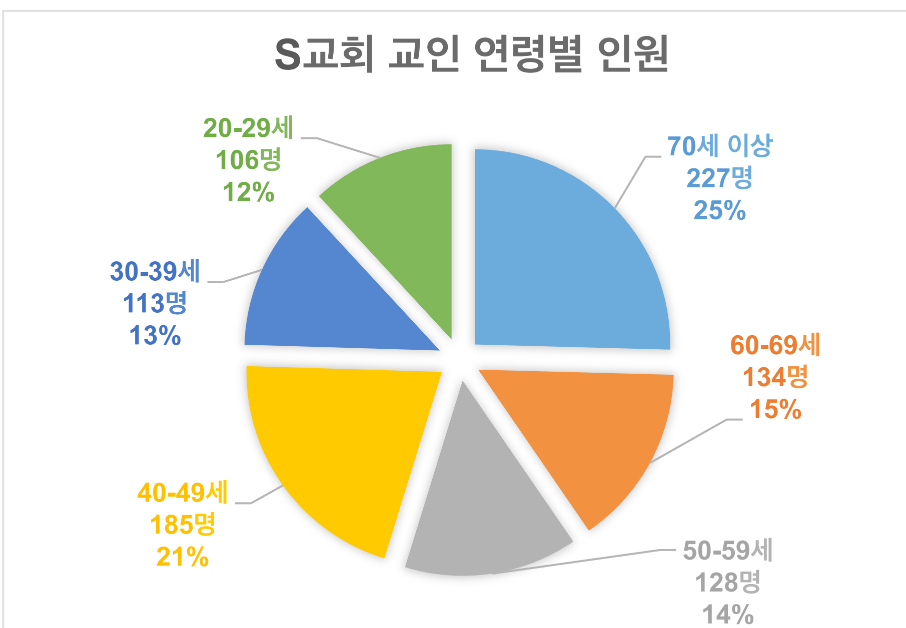
[7] "대한민국 100 대 지표 노령화 지수," 통계청, accessed November 19, 2019, http://kosis.kr/conts/nsportalStats/nsportalStats_0102Body.jsp?menuId=10&NUM=1016&searchKeyword=&freq=&cntUpdate=Y.

〈표 4. 대한민국 연도별 노령화 지수 2〉



한국 사회의 고령화에 발 맞추어 한국 교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다. 현재 내가 소속해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교회의 구성원은 이미 고령화되어 65 세 이상 교인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65 세 이상 교인의 비중이 전체 교인수의 30%가 넘는 교회가 교단 전체의 2/3 를 넘어서고 있다.[8] 또한 내가 목회하는 S 교회의 구성원 역시, 전체 교인 중 70 세 이상 노년 교인 수가 25% 정도가 된다.

〈표 5. 2019 년 S 교회 교인 연령별 인원(20 세 이상 총 893 명)〉



[8]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제 104 회 총회보고서*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2019), 874.

이러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 내 노년세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들을 위한 건강한 목회적 방향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 설은주는 과거 전통사회에서 노인의 위치와 오늘날 노인의 위치를 비교해 보면 커다란 차이를 발견할 수 있고 한다. 그녀는 유교적인 전통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었던 사회에서 노인은 한 집단의 가장이나 연장자로서의 권위를 지니고 젊은이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오늘날 현대사회는 산업화, 현대화, 도시화,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노인들의 권위와 지위는 박탈되고 오히려 고립된 존재로 여겨진다고 보고 있다.[9] 또 추부길은 노인의 평균연령은 상향되고, 수입은 감소하며 벌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노인 질병의 만성화, 또 고독과 소외라는 심리사회적 문제는 단순히 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한다.[10] 나는 이러한 현 주소를 인식하면서 교회가 이른바 100 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노년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이 교회에 바라는 욕구와 또 그들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신앙적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신앙교육의 방향성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양적인 성장에만 관심하였기 때문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 소홀하였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물질 만능주의가 편만해진 현대 사회의 교회에서도 생산력을 상실한 노인들의 욕구는 등한시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설은주는 교회 안에서 노년세대를 위한 사역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첫째는 노인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한 문화, 둘째는 노인의 역할 상실과 소극적인 태도, 셋째는 노인전문 사역자의 부족, 넷째는 노인사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미흡 등을 들고 있다. 특히 교회에서 교육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노년세대를 위한 예산이 1%이하인 교회가 49%, 1-5%이하의 교회가 40%로 전체 예산의 5%이하를 노년세대를 위해 쓰고 있는 교회가 89%로 나타났다고 말한다.[11] 이 통계 자료를 보며 나는 한국 교회의 노년세대를 위한 목회적 관심과 배려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앞으로 시대에 노년세대는 한국 교회 목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며 노년세대는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교회는 노년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장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나는 본 프로젝트에서 S 교회의 노년세대를

---

[9] 설은주, *고령화 시대의 노인 목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5), 27.

[10] 추부길, *가정사역닷컴* (서울: 가정사역연구소, 2002), 305.

[11] 설은주, 27.

심층 면담하며 현재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S 교회의 노년세대 신앙교육에 대해 돌아보고, 그들을 위한 목회적 실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새롭게 모색하였다. 또한 교회 구성원 중 다수를 차지 하고 있는 노년세대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이해를 재정립해보았다.

C. 용어정리 (Definitions of Terms)

1. 노년세대

노인의 사전적 의미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다."[12] 국제연합(UN)에서는 65 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도 역시 인구학이나 사회분야에서도 65 세를 노인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노인 혹은 노년세대는 연구자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제직원 은퇴 연령인 70 세를 기준으로 희망대학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고 있지 않는 70 세 이상의 노인들로 정의한다. 그들을 노년세대라고 하겠다.

2. 희망대학

이 프로젝트의 연구 대상자의 집단이 되는 희망대학은 연구자가 목회하고 있는 노년세대 신앙교육 프로그램으로서 70 세 이상의 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1980 년부터 2020 년 현재까지 40 년째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다.

3. 노년세대 신앙교육

레티 러셀(Letty M. Russell)은 "신앙교육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는 한 방법이다"[13]라고 말한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기 위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교육은 단지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세대적이며, 모든 신앙인들의 통전적인 신앙발달과 성숙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히 노년세대의 신앙교육은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걷고 있는 시기이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12]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accessed November 19, 2019,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13] Letty M. Russell, *기독교교육의 새 전망*, trans. 정웅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99-104.

로널드 밀러(Ronald H. Miller)는 노인에 대한 신앙교육을 위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14] 첫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문화적 조건뿐 아니라 개인적 감정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삶의 한계를 두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다. 노년교육은 깨달음을 위한 교육인 것이다. 둘째, 나이가 들어갈수록 맞이하는 여러 상황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그리고 서로서로를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의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우며 그 상황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의지적 결단을 위한 교육이다. 셋째, 세대간의 연속성을 이해하고 과거와 미래로 연결되는 자신들의 삶의 연속성을 깨닫게 함으로 자신의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일치성의 교육이다. 넷째, 노년세대의 모든 관계가 서로 돌보는 공동체로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정의 대화를 이어가는 상호의존을 위한 교육이다.

4. 환대

일반적인 의미의 환대는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존 쾨니그(John Koenig)는 환대를 "영을 회복시키는 인간의 하나의 대체요소이며, 이 단어는 노동과 여행 시 휴식을 위한 장소를 뜻하며, 우리의 집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가정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뜻한다. 또한 그것은 환영을 실천하는 일"[15]이라 한다.

신약성서에서 환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필로크세니아'(philoxenia)로 '낯선 자를 사랑함'이란 뜻이다. 그 반대에 해당하는 말은 '크레노포비아'(xenophobia)로 곧 '낯선 자를 미워함'을 뜻한다.[16] 러셀은 그의 책 *공정한 환대*에서 "환대란 위기에 봉착한 우리 세계를 치유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차이를 넘어서 연결하는 우리의 행동 속에 각인된 하나님의 환영을 실천하는 것이다"[17]라고 말한다.

---

[14] Ronald H. Miller, "Adult Religious Education and the Aging," in *Ministry with the Aging*, ed. William M. Clements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1), 235-49, quoted in 설은주, *고령화 시대의 노인 목회*, 187-88.

[15] John Koenig, *New Testament Hospitality 환대의 신학*, trans. 김기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9-17.

[16]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공정한 환대,* trans. 여금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48.

[17] Russell, 24.

5. 자아 통합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은 인생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달성해야 할 과업을 '자아 통합'(ego integrity)이라고 한다. 그는 자아 통합의 달성은 생애를 돌아보는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활동은 노인으로 하여금 삶의 지혜를 갖도록 한다고 말했다.[18]

에릭슨이 말한 자아 통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개인이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사회로부터 요구되는 기술과 능력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의 결과로서 자신의 일생을 후회 없이 수용하고 현재 생활에 만족하여 과거, 현재, 미래간에 조화된 견해를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심리적 안녕상태(psychological wellbeing)를 말한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의 자아 통합이란 자기의 지나간 일생에 대해 그런대로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온 의미 있는 일생이었다는 느낌을 가질 때, 달성하지 못한 일보다 이룩한 일과 행운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를 가질 때 생기는 것이다.[19]

D. 청중 (Audience)

이 프로젝트의 주된 청중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 본인이 이 프로젝트의 제 1 청중이다. 나의 목회적 방향성을 잡는 진지한 물음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S 교회의 노년세대의 교육목회적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회의 노년목회 담당 목회자이다. 교회 공동체에는 다양한 연령의 구성원들이 존재하므로 목회적 관심이나 교육 참여자를 어느 특정 세대로만 제한하기 보다는 모든 세대를 향한 전세대적 교육목회로 확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특히 노년세대를 위한 목회적 돌봄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셋째,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다. 교회들이 '노인대학'과 같은 형태의 노년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육 참여자인 노년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의 욕구를 반영하며,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욱 잘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18] Jackie C. Lanum and James E. Birren, "성인발달의 이론과 개념," in *노화, 영성, 종교,* ed. Melvin A. Kimble et al, trans. 노인사목연구위원회 (서울: 소화, 2011), 588.

[19] 박순오, *잃어버린 자아 정체감의 회복*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5), 14.

E. 범위와 한계 (Scope and Limitations)

이 프로젝트는 S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년세대의 신앙교육 프로그램인 희망대학의 커리큘럼과 내용들을 살펴보고, S 교회의 노년세대의 신앙생활과 희망대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S 교회의 노년세대 교육이 보다 온전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기에 이 프로젝트의 제한성은 연구 참여자의 범위가 연구자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노년세대, 특히 희망대학이라는 신앙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 S 교회에서도 희망대학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본 프로젝트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에 교회 전체의 노년세대 신앙교육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치유,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을 제시하는 연구로 발전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F. 독창성과 공헌 (Originality and Contributions)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교회는 노년세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그들을 온전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안내할 신앙교육의 방향성이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가 교회 내 노인수 증가에 따른 노년세대를 향한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회자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연구자 자신이 노년세대의 관심과 욕구를 살펴보면서 희망대학이 나아갈 새로운 교육적 방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프로젝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노년세대를 위한 신앙교육과 실천신학적 목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당면한 과제인 증가하는 노년세대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목회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공헌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Chapter II
연구 방법론과 연구방법 (Methodology and Methods)

A. 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1. 현상학적 방법론

나는 본 프로젝트를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현상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논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상학적 방법론은 인간이 경험한 현상에 접근하여,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의 구조를 이해하고 밝히는 것이다. 즉, 하나의 현상에 대해 여러 개인들이 경험한 의미를 기술하며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이다.[20] 본 프로젝트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교회 안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년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신앙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노년세대를 위한 목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교회의 노년세대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신앙교육에 관심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을 시작하였다. 노년세대 신앙교육의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현재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작업은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년세대가 경험의 의미를 기술하게 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방법은 노년세대의 지난 온 경험과 현재 그들의 욕구와 바람들을 담아내기에 매우 유용한 연구방법론이 되었다.

2. 연구 진행과정

노년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 생활과 신앙교육의 욕구들을 살펴보고, 고령화 시대의 노년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목회적 방향성을 발견하기 위해 나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이 프로젝트의 연구 진행과정을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설계하였다.

제 1 단계는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느낀 문제와 논지에 대해 밝힌다.

제 2 단계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표집한다.

제 3 단계는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제 4 단계는 수집한 연구 자료를 Giorgi 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한다.

제 5 단계는 분석결과에 따른 논의 및 결론으로 진행하였다.

---

[20] 김영천, *질적 연구방법론Ⅱ: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90.

3. 심층 면담

심층 면담은 참여자의 삶과 경험을 그들의 언어와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해 면담자와 대화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단순히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생생한 삶의 경험과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다.[21] 나는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노인들과 심층 면담을 통해서 노년세대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과 신앙생활에 대한 현상과 의미들을 발견하므로 노년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그 방향을 연구하였다.

나는 심층 면담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반 구조화된 면담 가이드에 의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반 구조화된 면담 가이드에 의한 면담이란 연구자가 만든 면담 가이드에 의해 면담을 진행하지만 적절하게 개방형 질문을 사용함으로써 면담의 적절한 유연성과 융통성을 유지하는 면담형식이다. 반 구조화된 면담은 면담자가 알고 싶은 주제에 대하여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개방적으로 피 면담자와 하는 면담이다. 반 구조화된 면담 가이드를 작성하는 이유는 구조화된 질문으로는 참여자가 살아온 삶과 신앙의 이면까지 들여다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비 구조화된 면담을 하기에는 면담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방만해져서 연구의 주제와 상관 없는 내용들로 그 내용과 의미가 구체화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22]

심층 면담을 위한 개방형 질문은 다음과 같다. 개방형 질문을 사용한 이유는 참여자의 삶의 정황과 그들의 삶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은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첫째는 노년과 은퇴를 맞은 노년세대가 겪는 차별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 둘째는 신앙교육 프로그램인 희망대학에 대한 이야기, 셋째는 삶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이다.

번호	질문내용
1	본인이 나이가 들었고 노인이 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2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본인이 노인이 되었음을 자각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1] 김영천, *질적 연구방법론 I : Bricoleur*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323-24.
[22] 김영천, 326-28.

3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와 노년세대 간의 세대별 차이로 인해 차별 받거나 갈등을 겪은 경험과 그것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주십시오.
4	노년세대 안에서 남녀의 차별이나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5	교회 직분에서 은퇴하신 것에 대한 소감을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6	교회 안에서 노년세대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또 노년세대를 위해 교회가 해 주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7	우리 교회에서는 노년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프로그램으로 희망대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십니까?
8	참여하신다면, 희망대학 프로그램 중에 기억에 남거나 의미를 준 프로그램은 무엇이었습니까?
9	참여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10	우리 교회의 노년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인 희망대학 프로그램 중에 필요한 내용이나 다루거나 싶은 내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1	교회에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12	자신의 삶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13	지난 날의 생을 정리하고, 노년의 삶을 마무리하는 일에 교회가 어떤 역할과 도움을 주길 원하십니까?

B. 연구참여자 (Research Participants)

1. 연구 참여자 선정 방법

질적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현재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구술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논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내가 목회하고 있는 S 교회의 70 세 이상의 노인 교인들을 대상으로 연구참여자를 위한 공개모집 후에 표본을 추출하여 연구자와 심층 면담이 가능한 연구 참여 후보자들 중 연구 참여에 최종적으로 동의한 10 명이 선정되었다.[23]

[23]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번호로 표기하였다.

S 교회는 희망대학이라는 노년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희망대학에 참여하는 기준 연령을 70 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70 세 이상의 노인 교인들 중 희망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이와 참여하지 않는 이들을 나누어 선정하였다. 이것은 희망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과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들의 갈등의 상황을 인지하고 연구 참여자 선정에 공정성을 두고자 함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향후 개선될 S 교회 희망대학 프로그램의 실질적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남자 4 명, 여자 6 명을 연구 참여자로 삼았다. 이는 한국 교회에서 여성 교인들이 다수를 차지 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였다. 또한 성별의 차이나 차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이다. 또 은퇴한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로 구분해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상이한 신앙력과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함이었다.
70 세라는 연령의 기준은 직분자 은퇴연령과 연관이 있었다. 현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직분자의 자원 은퇴는 65 세, 정년 은퇴는 70 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24] 70 세 이상의 교인 중 70 대의 인원수와 80 대 이상의 인원수를 고려하여 70 대 8 명, 80 대 이상 2 명으로 구분하였다.

〈표 6.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

	나이(대)	성별	직분(은퇴)	희망대학 참여여부
연구참여자 1	80	여	장로	참여
연구참여자 2	80	여	권사	참여
연구참여자 3	70	여	권사	미참여
연구참여자 4	70	여	권사	참여
연구참여자 5	70	여	집사	참여
연구참여자 6	70	여	평신도	미참여
연구참여자 7	70	남	장로	참여

[24]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헌법*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출판사, 2013), 112.

연구참여자 8	70	남	권사	참여
연구참여자 9	70	남	권사	미참여
연구참여자 10	70	남	평신도	참여

2.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접근과 연구 엄격성 담보

본 연구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우선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계획을 알려주고, 의사를 밝힌 참여자들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문서로 제공해주었다. 그러면서 본 연구의 결과물들이 목회학 박사 과정의 프로젝트로 작성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그런 후 연구의 필요성, 연구 주제, 목적, 과정, 녹음 등에 관해 부연하였다. 또한 양적 연구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설문지 조사와는 전혀 다른 질적 연구의 생소함을 염두에 두고, 질적 연구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동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천천히 읽어 볼 것을 권유하였다. 연구 동의서는 연구자와 연구자의 지도교수에 대한 소개와 연락처를 기재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후에는 언제든지 연구에 참여하기를 중단할 수 있고 연구과정은 면담으로 진행되며 그 내용은 녹음될 것이며 녹음된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에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 보장을 위해 익명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연구자와 1 회 이상의 면담을 하게 되며 경험의 정확성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녹음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거듭하였다. 녹음 된 내용은 기록될 것이며 그 내용을 분석하여 연구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연구 참여자가 보고 싶으면 언제나 보기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자발적 참여를 위해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밝히고 연구 참여에 최소한의 부담을 느끼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의 관계가 한 교회의 교인과 목회자라는 특수한 관계이기에 자발적 참여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함으로 연구 참여를 결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이나 불편 사항이 알려진 바 없음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 전화를 걸어 면담을 위한 장소, 날짜, 시간을 연구 참여자와

논의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나이가 많은 고령임을 감안하여 연구 참여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 거주지 근처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 면담장소를 연구자가 주로 있는 교회로 정하길 원하는 이들에게는 연구 참여자들이 교회에 오는 날짜나 요일, 시간 등을 감안하여 면담의 일정을 조정하였다. 또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면담시간을 30 분에서 1 시간 사이로 정하여 면담을 통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주지 않으려 하였으며, 면담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위하여 면담을 나누어 실시하기도 하였다.[25] 심층 면담 중 질문에 답하기 어렵거나 불편함을 느끼거나, 또 1:1 로 면담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 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 면담하던 중 잠시 중단 할 수 있고, 원할 때 언제든지 쉴 수 있으며, 연구 참여자는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원하는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녹음을 중지할 수 있고, 언제라도 답변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면담 내용에 대한 2 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면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에 최선을 다하였다. 심층 면담은 연구 참여자들과 미리 약속하고,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진행될 것이나, 공개적인 장소를 선택하였다. 교회 안에서 면담이 진행될 경우에는 공개적이지만 개인의 대답들이 보호되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편안한 소그룹실을 활용하였다. 소그룹실은 자연광이 잘 드는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으로 반노출 개방형 유리 벽과 문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이 공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공간으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연구와 면담을 위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 연구자인 목회자와 연구 참여자인 교인 간의 특수 관계로 인한 위계에 따른 압력이 있지 않도록 라포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26] 면담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교회 공간이 아닌 연구 참여자가 선호하는 카페나 음식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면담에 앞서 함께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며 편안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복장은 정장을 피하고 가급적 편안한 복장으로 연구 참여자와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한 질문과 대답 이외에도 개인의 안부와 근황을 물으며 친밀감과 신뢰감을 기반으로 면담을 진행하고자 노력하였다. 나는 연구 참여자와 충분한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상호 신뢰적인 분위기 속에 연구 참여자의

---

[25] 기관윤리심사위원회(IRB)의 조언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이 고령임을 감안하여 면담을 위한 장소, 면담 시간, 면담의 질문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함을 인지하게 되었다.

[26] 라포(rappot)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호 이해와 공감을 통해 형성되는 신뢰관계와 유대감을 말한다.

이야기를 공감하고 경청하였다. 참여자들로 하여금 생생한 경험을 솔직하고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면서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하였다.

녹음된 인터뷰 내용은 연구가 종료되면 즉각 파기할 것을 알렸다. 또 연구자료들이 필사되는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없도록 모든 필사는 연구자가 하고 자료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연구자료들은 컴퓨터에 저장할 때 비밀번호를 걸어 보안조치 하였다. 녹음된 내용은 반복해서 청취하였으며 빠른 시일에 필사되어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인터뷰 내용의 요약과 연구 결과는 연구 참여자에 의해 확인되었다.

또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 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아 엄격하게 윤리적인 보호 아래 연구를 진행할 것을 설명하고 면담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은 현상을 파악하는데 연구 자료로만 사용될 것도 설명하였다. 면담의 내용이 학술 자료로 이용되고 책으로 출간 시에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고,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는 유출하지 않은 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다.

연구과정 중 연구 분석된 자료와 연구 결과를 연구 참여자에게 보냈고 그들의 피드백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연구 되었는지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과 반응을 들었다. 특이한 문제제기는 되지 않았고, 본 연구의 결과로 목회학 박사 과정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지는 데에 대해, 연구 참여자 전원의 동의와 합의가 있었다.

C. 연구절차 (Research Process)

1.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10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 1일까지 진행되었다.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거주지 주변의 음식점, 커피숍, 교회 소그룹실 등이었다. 연구 참여자 별로 1~2회의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 과정에서 참여자의 개방 정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욕구가 표현될 것을 대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현상학에 있어 자료 수집의 중요한 원리인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연구현상에 대한 충분하고 풍부한 이해를 위해 참여자들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까지 수집하였으며, 적게는 1회에서 2회까지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매 회기마다 평균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다.

나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본격적인 심층 면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진행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면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와 익명 처리를 보장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원할 시에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면담 동안에 이루어지는 기록의 목적과 용도도 설명하였다. 또한 모든 녹취된 면담내용의 기초자료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면담지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성별, 연령대, 직분, 희망대학 참여여부 등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이며, 두 번째 부분은 교회 노인신앙교육 프로그램 욕구에 대한 질문으로서 기존에 경험했던 희망대학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소감에 대한 솔직한 내용으로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욕구들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끔 이끌었다. 이는 지오르지(Giorgi)가 제시한 대로 연구자 자신들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너무 상세한 질문들을 면담 이전에 선정하지 말 것을 따랐기 때문이다.[27]

2. 연구 절차 및 과정

나는 심층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지오르지(Giorgi)'의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노년세대가 자신의 언어로 드러내는 다양한 생각, 의미부여, 기술 등을 통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들 경험의 의미를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연구가 필요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 노년세대의 참여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Giorgi의 분석방법인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런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노년세대의 삶과 신앙생활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고 그들의 욕구와 내포하고 있는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다면적, 개방적, 심층적 질적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의미 별로 범주화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를 학문적 용어로 전환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Giorgi의 연구방법은 참여자 개인의 독특성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 각 개인의 노년세대와 노년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과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Giorgi가 제시한 4단계의 분석과정으로 면담 내용을 분석하였다.

---

[27] 김영천, *질적 연구방법론 II*, 106.

4단계의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체인식의 단계는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얻기 위해 어떤 특별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개방적 태도로 전체 기술 내용을 읽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의미단위를 구분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에서 선별한 문장을 현상학적 환원의 자세에서 다시 원래의 의미로 돌아가 연구 참여자의 일상적 표현을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는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는 자유로운 창조적 사고를 통해 서로 얽혀있는 의미와 관련된 구성요소들을 재편성하고 원래 사건의 유형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다.[28]

이러한 분석 절차를 따라 나는 면담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1. 면담에서 녹음한 파일을 듣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사본을 읽는다.
2. 각각에 필사본에 대해 직관적으로 분석, 파악하고 반성한다.
3. 각각의 필사본 속에 있는 의미의 단위들을 파악한다.
4. 필사본에 있는 각각의 의미 단위와 관련된 진술들을 다시 묶고 재 기술한다.
5. 주제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참여자 전반에 걸쳐서 각각의 의미에 관해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반성한다.
6. 각각의 불변의 주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유형을 분류한다.
7. 참여자에게 유효성을 확인한다.
8. 모든 진술들을 종합한다.[29]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참여자의 체험을 듣고 노년세대의 오늘의 자리와 바람을 파악하는데 매우 적절하였다. 하지만 나는 연구자로서 면담에 앞서 나 자신의 편견을 버리는 판단중지를 하였다. 이것은 연구자가 면담을 진행하기 앞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노년세대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의 체험의 본질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 현상학은 선입견과 이론적 견해를 배제한 채 연구 참여자의 즉각적 경험 안에서 얻어질 수 있는 현상의 본질에 주목한다. 이렇게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체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존의 생각을 버리는

---

[28] 양한나, 정진욱, and 김연수, "장애인의 수중운동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Giorgi 의 기술적 현상학 방법의 적용," *한국특수체육학회지* vol. 16 no. 2 (June 2008): 225-50.

[29] 김영천, *질적 연구방법론 II,* 107.

것이다.[30] 이와 같은 작업을 에포케(epoché)라 하는데 '현상에 관한 편견을 인지하고 제쳐둔 다음, 현상을 새롭게 인식하려는 과정'으로 현상학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31] 본 연구를 위한 연구자의 주요한 판단중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년세대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어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2. 노년세대는 변화를 싫어할 것이다.
3. 노년세대는 존중과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4. 노년세대는 배우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다.
5. 노년세대는 전통적인 교회생활을 좋아할 것이다.
6. 노년세대는 신앙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7. 노년세대가 원하는 신앙교육은 예배에 국한할 것이다.
8. 노년세대는 은퇴와 함께 깊은 상실감에 빠질 것이다.
9. 노년세대 안에서도 세대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10. 노년세대 안에서도 성차별이 존재할 것이다.
11. 노년세대는 자신의 노화와 죽음에 대해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12. 노년세대는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13. 노년세대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14. 노년세대가 원하는 신앙생활이나 신앙교육이 있을 것이다.

---

[30]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 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2018),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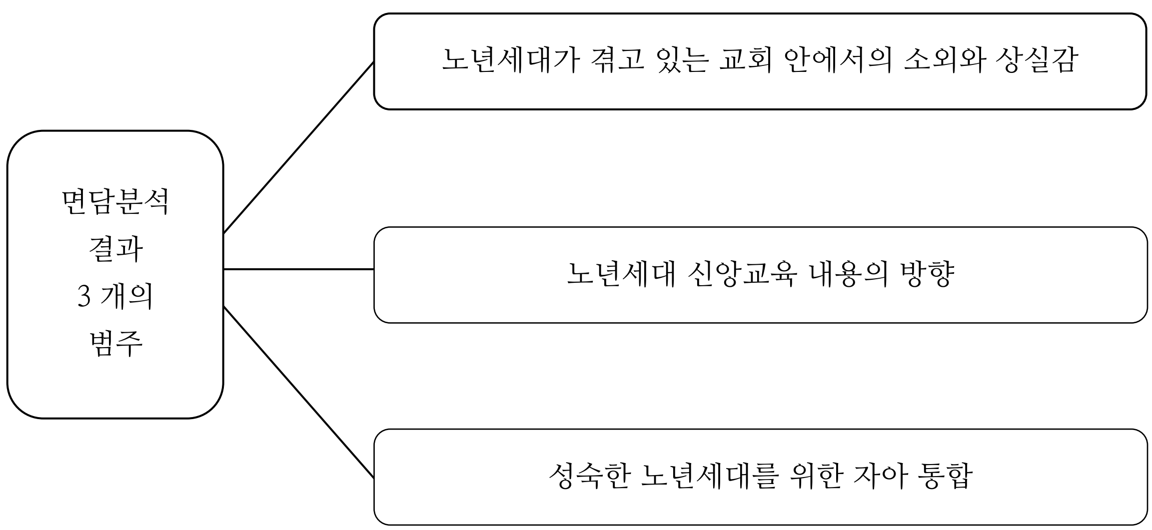
[31] Nigel King and Christine Horrocks, *Interviews in Qualitative Research 질적 연구에서의 인터뷰*, trans, 김미영, 김려화, 박금주, and 지은주 (서울: 현문사, 2013), 253–54.

Chapter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Research Data and Analysis)

나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10명의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수집한 진술과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심층 면담 내용을 Giorgi의 연구 방법에 따라서 그 내용을 분석하고 각각의 의미단위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S교회의 노년세대가 겪고 있는 노년의 상황, 희망대학이라는 노년세대 신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성찰적 평가 및 바람 그리고 생의 마지막과 마무리를 위한 노년세대의 생각과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면담의 내용은 총 23개의 의미 단위로 요약하였고, 이를 11개의 주제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11개의 주제를 6개의 구성요소로 다시 묶어 총 3개의 범주를 도출해 내었는데 각각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노년세대가 겪는 교회 안에서의 소외와 상실감' 둘째, '노년세대 신앙교육 내용의 방향' 셋째, '성숙한 노년세대를 위한 자아 통합'이다. 면담 내용의 자료 분석 결과는 〈부록 A〉에 첨부하였다.



A. 교회 안에서 소외 당하는 노년세대 (The Marginalized: The Old Generation in the Church)

나는 연구 참여자들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면서 "나는 늙었다고, 노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되었다.[32] 이는 노년세대가 스스로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있다는 또는 늙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는 심정을 반영하는 대답일 것이다. 또 늙어감의 끝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부정과 거부의 반응이라 보여진다. 노년세대는 이렇게 자신이 늙었다는 것에 대해 부정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일상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특히 질병으로 인한 건강 상태와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 토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노년을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 [연구 참여자 1]
> *내가 바보가 되었어, 기억력이 없어지고 생각이 모자라게 되었어.*
>
> [연구 참여자 3]
> *자꾸 까먹고... 또 경로석에 앉은 사람들 보면서 '어우, 저렇게는 늙지 말아야지' 했던 내가 경로석에 앉아 나를 돌아봅니다.*
>
> [연구 참여자 4]
> *몇 번 넘어지고, 주저앉고 하는 일들이 있고, 이제 슬슬 나타나서 요새는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 많이 걱정해요.*
>
> [연구 참여자 7]
> *건강상의 차이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평소 건강했지만 대장암 수술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더 약해진 것 같아요. 기운이 없어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벽을 집고 일어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
>
> [연구 참여자 10]
> *거울을 보면서 내 외모가 바뀐 것을 보고 느껴요. 아 나도 이제 늙었구나, 예전이랑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기억력이 점점 약해서 큰 일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건강상태나 신체적 변화를 통해 본인이 노인이 되었음을 인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구 참여자의 주변 상황으로 인해 노년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이루었다.

---

[32] 연구 참여자 10 명 중 8 명은 70 대에 해당하는 연령대였다. 이들은 모두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반면 80 대에 해당하는 2 명의 참여자는 자신이 노인이 되었다고 인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3]
이상하게 젊은이들이 뭐라 하지 않는데, 제가 괜히 위축되서 물러서게 되더라구요.

[연구 참여자 5]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들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 쉬엄 쉬엄 해라'. 그런 얘기 들으면 나도 이제 노인이구나 싶어요. 또 손녀가 생기고 할머니가 되니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싶어요.

[연구 참여자 6]
젊은이들이 노인들보고 비켜라 할 때, '아~ 이제 내가 노인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연구 참여자 8]
아이들이 커 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손자들이 커가는 과정을 보면 아주 급성장을 하는 반면에 '나는 급강하로 노인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연구 참여자 9]
'너는 안 늙었는 줄 아냐'라는 말은 옆에서 들을 때, '아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100 세 가까운 나이 지금은 70 대 후반인데 '이제 곧 100 세가 되지' 하면서 나이든 걸 생각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연구 참여자가 노년을 맞아 본인이 노인이 되었음을 자각하고 주변 상황으로 인해 노년세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할 때 찾아오는 것은 '상실감'이었다.

[연구 참여자 2]
'나 같은 쓸모 없는 늙은이가 교회에 가서 패가 되지는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정초에 꼭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연구 참여자 7]
기운이 없어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벽을 집고 일어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

[연구 참여자 8]
이게 내 교회인데,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없는 것 같고, 내가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하고 가는 듯한 느낌이고, 예배 드렸는데 예배도 드린 것 같지 않고 집에 와서도 뭔가 까 먹고 왔다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연구 참여자 9]
나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예'하고 얼른 뛰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요새 살아요.

[연구 참여자 10]
하던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은퇴를 했죠. 그때는 정말 벼락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힘들고 어려웠죠.

노년세대가 겪는 상실감은 건강의 문제, 경제적 불안정, 사회나 가정, 교회에서의 역할 상실 그리고 관계의 상실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실감은 노인에게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노년세대에게 이러한 스트레스는 신체적 증상에서부터 심리적 그리고 영적인 영역까지 영향을 미쳤다. 노년세대의 상실감은 그 세대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부정적인 경험일 뿐 아니라 깊은 우울증과 같은 심인성 질환과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는 삶에 대한 의욕과 생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려 심리사회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자기 기반을 잃고 사회적 일체감을 상실한 채 고독과 소외감 같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한다.[33]

상실감과 더불어 교회 안에 노년세대가 겪는 위기는 '소외감'이다.

> [연구 참여자 2]
> *은퇴할 때 울었어요. 서툴지만 교회일 할 때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렇게 서운해요. 우리가 일할 때는 시대적으로 어려운 때라, 여러모로 일을 많이 했어요. 교회를 위해 전심전력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은퇴 할라 하니까 일도 안 했는데 벌써 그만해야 되는 나이가 되었구나, 쓸모 없게 되었나 싶었죠.*
>
> [연구 참여자 4]
> *교회에서는 사람들 만나서 안아주고 인사하면서 내 존재감을 느끼고, 집에서는 아직 건강한 몸으로 식구들 챙겨줘야지 하면서 살아요.*
>
> [연구 참여자 6]
> *언젠가 친교실에서 차를 끓이고 있는데, "이제 권사님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 있죠. 내가 너무 놀랐어요. 담당자를 대신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서... 아주 당돌하게 말하는 거 있죠. 그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배제 당하고 나서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 '아, 이제 날 노인 취급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제 나는 나설 자리가 없구나, 교회 안에서 소외 당하고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아직은 할 수 있는데… 소외 받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
> [연구 참여자 7]
> *은퇴함으로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일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역할이니까요… 그런데 원로로써의 역할이 없어요.*
>
> [연구 참여자 8]
> *또 애들이 떠나고 나면 소외감을 느끼고, 허전한 느낌이 오지요.*
>
> [연구 참여자 9]
> *그런데 이제 늙어서 봉사도 못하게 되는 구나 싶은 게 또 서운하더라구요. 결국 일을 못하게 되니 우린 늙었구나 하고 생각했죠.*

---

[33] 이정은, "노인의 상실감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PhD diss., 청주대학교 대학원, 2014), 8-10.

교회 안에서 노인이 되고 은퇴하게 된 노년세대는 교회 구성원에서 벗어난 사람, 주변인이 되어버리고, 교회의 중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직분자의 역할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노년세대는 그 어디에서도 환영 받지 못하는 소외된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이들 특히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갈등을 호소한다.

> [연구 참여자 1]
> *많은 사람과 사귀는 게 힘들어. 함께 어울리고 지내는 게 힘들어. 몇몇 사람들과는 괜찮은데 여러 사람들하고 사귀는 게 힘들어. 젊은 사람들하고는 더 그렇고…*
>
> [연구 참여자 2]
> *내가 젊었을 때 교회 왔을 때는 어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복종 해야 했어. 나는 시어머니, 할머니 대하듯 했는데 요즘은 그런 풍습은 잘 없죠. 자기 부모한테도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젊은이들한테)그런 걸 바란다는 게 말이 아니지.*
>
> [연구 참여자 3]
> *옛날에는 교회 어른들을 보면 저절로 '권사님' 하면서 인사했어요. 공경의 자세로, 그런데 요새는 참 그런 게 없어요. 인사 안하고 가. 세대가 그렇다는데 어떻겠어요.*
>
> [연구 참여자 4]
> *교회 일 할 때,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어려웠어요. 봉사하는데 젊은이들 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힘들었어요.*
>
> [연구 참여자 5]
> *세대차이 있어요. 저희들은 어른들을 섬겼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잘 안 섬기는 거 같아요.*
>
> [연구 참여자 6]
> *젊은이들이 살아온 세상이 너무 다른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거 같아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신앙공동체 안에서는 예의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럴 걸 잘 모르는 거 같아요.*
>
> [연구 참여자 9]
> *직장생활 오래하면서 사람 사귀는 거 관계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나 처음 교회 왔을 때 교회 어른들이 참 어렵더라구요. 그런 어려움이나 공경심, 뭐 그런 게 요즘 (젊은이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 교회 안에서 노년세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실을 경험하고 소외 당하며 젊은이들을 비롯한 교회 구성원들에게 환대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노년세대는 스스로 교회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나서면 안 되는 존재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 [연구 참여자 1]
> *역할이야 많지만은 나서질 못하잖아요. 해야 할 일이야 교회에 많잖아요.*

[연구 참여자 2]
그리고 어른이 되면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교회를 위해 생각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3]
일하는 사람에게 잔소리하는 게 원로가 아니라…지도하지 않으려 하는 게 덕이라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4]
우리는 가만히 있고, 가르쳐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생각해요. 우리는 은퇴했으니 자격이 없는 것이니까.

노인이 되니 그들에 주어지는 것은 침묵이라는 덕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그저 조용히 기도나 해야 되는 사람으로 소외 당하고, 주변으로 내몰리는 주변인의 자리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면담에 앞서 나는 노년세대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는 판단 중지 중에 '노년세대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어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노년세대는 존중과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노년세대를 면담하며 그와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들은 노년을 맞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거나 존중 받거나 대우 받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성경에 나타난 노인은 존경과 공경의 대상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노년세대는 그런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지 못했다. 또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노인의 역할은 사라지고 은퇴 후 그들이 설 자리는 오로지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나 해야 되는 상황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노년세대의 자리이다. 젊은이들을 축복하고 가르치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노인으로서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그저 교회 일에 방해만 되며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들로 전락한 것이다. 교회 안에서 상실감을 경험하고 주변인처럼 소외 당하며 환대 받지 못하는 노년세대를 위해 교회와 목회자는 어떻게 그들을 돌보며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B. 노년세대가 원하는 신앙교육 (Christian Education of the Old Generation)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은 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이다. 그들이 그 동안 교회에서 받아온 신앙교육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수 많은 내용으로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신앙교육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현재 혹은 과거에 그들이 참여했던 노년

신앙교육 프로그램인 희망대학에 대해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면담을 통해 얻게 되었다. 하지만 본 프로젝트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나 선호에 대한 내용들은 제외하고 노년 신앙교육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노년세대가 자유스럽게 요구한 내용들의 의미와 주제들을 분석하고자 한다.[34] 연구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해보면 3 가지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노년세대는 희망대학을 통해 신앙적이고 성서적인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배워가길 원했다.

> [연구 참여자 4]
> *성경이야기를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로 봤으면 좋겠어요.*
>
> [연구 참여자 5]
> *신앙적인 내용이나 성경적인 강의는 자꾸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건 노인들 뿐만 아니라 다 같이 들어야 된다고 봐요.*
>
> [연구 참여자 6]
> *희망대학의 그런 강의보다 예배 중심으로 신앙교육이 있었으면 해요. 이제 배울게 뭐 있냐? 라고 하지만 성경 안에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초점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배우고 해야 되는 게, 그래서 반복적인 신앙교육은 계속되어야 한다.*
>
> [연구 참여자 7]
> *희망대학에서 건강에 대한 강좌나 신앙이나 성경에 대한 것들에는 참석합니다.*
>
> [연구 참여자 8]
> *교회 왔으면 신앙적인 이야기를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전통적인 신앙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 [연구 참여자 10]
> *저는 그냥 예배 드리고 성경공부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희망대학은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된 신앙교육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을 통해서 얻게 된 사실은 희망대학의 많은 프로그램 내용 중에 가장 필요로 하고 지속해야 되는 내용으로 지목하는 것은 바로 신앙과 성서에 대한 내용의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프로젝트를 위한 면담을 진행하기 앞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노년세대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은 판단중지 내용으로 '노년세대는 신앙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노년세대가 원하는

[34] 기존에 참여했던 희망대학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나 선호도에 대한 것을 제외한 것은 심층 면담을 위한 표집된 소수의 인원이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한계와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프로그램 내용에 평가보다 노년세대가 원하는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신앙교육은 예배에 국한할 것이다'라는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노년세대는 여전히 성서에 대해, 신앙적인 성장에 대해 관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년 신앙교육을 통해 일반 상식이나 문화에 대한 강의보다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교육되어지길 바라고 있었다.

> [연구 참여자 3]
> *할머니들도 감성이 다 메마르지는 않아,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다큐나 영화 같은 거 보았으면 좋겠어.*
>
> [연구 참여자 4]
> *너무 유식한 얘기나 강의는 별로예요. 차라리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 이렇게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더 유익할 것 같아요.*
>
> [연구 참여자 5]
> *그리고 사회적인 내용이나 교양 강좌 같은 거 보다 좀 활동적이고 적극적인거 아니면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감동이 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은 밖에서도 들을 수 있거든요.*
>
> [연구 참여자 8]
>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신앙이 완숙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노년은 내려가는 삶이라 생각해요. 등산하면서 느끼지만 높은 산 일 수록 내려오는 게 더 어렵고 위험합니다. 이제 내려오는 일만 남은 노년들이 더 성숙한 맘을 가지고 어떻게 내려 올꺼냐, 뭐 이런 것이 나의 기도제목이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 … 백화점 문화센터의 문화적이고 상식적인 얘기, 노년의 건강이나 병에 대한 얘기 같은 것은 인터넷이나 TV 에서 다들을 수 있어요. 교회서 그런걸 하는 것은 그냥 세상의 것을 뒤 좇아가는 거 같아요.*

여기서 연구 참여자들이 말하고 있는 희망대학의 프로그램 중에 과연 어떤 부분이 일반 사회의 문화센터에서 다룰만한 상식과 교양 혹은 문화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희망대학에서 최근 3 년간(2016 년~2018 년) 실시되었던 프로그램 및 강좌에 대한 주제들을 검토하게 되었다. 희망대학에서 진행하였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부록 C〉로 첨부하였다.

총 43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이것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니 시사교양 16 개, 신체활동 8 개, 음악활동 6 개, 신앙 6 개, 건강 4 개, 문화활동 2 개, 만들기 활동 1 개로 구분할 수 있었다. 결국 참여자들이 요구하는 신앙과 성서에 대한 교육내용 보다는 시사교양, 신체활동, 음악활동, 건강 등에 대한 영역들에 대해 더 비중 있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심층 면담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이 희망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희망대학 활동들을 통해 그것에 대한 의미와 만족을 누리며 희망대학에 참여하는 노년세대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노년세대는 S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랜 기간 해왔던 교인들이고 다년간 희망대학에 참여하고 그 동안 가졌던 생각과 요구들을 면담을 통해서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된 내용과 결과는 노년세대를 위한 목회를 위해 귀 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며, 희망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평신도 봉사자들에게는 더 없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셋째, 나는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신앙교육의 내용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이 보다 성숙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신앙교육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남은 여생을 교회 안에서 완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배움의 노력들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노년이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을 통해 끊임없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감을 통해 영적 성숙을 이루길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C. 노년세대의 자아 통합 (An Ego-integration of the Old Generation)

생의 마무리 단계와 마지막 시기를 준비하는 노년세대의 삶 가운데는 성숙이라는 의미가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음을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

> [연구 참여자 3]
>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
> [연구 참여자 4]
>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인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 [연구 참여자 6]
> *이제 내려오는 일만 남은 노년들이 더 성숙한 맘을 가지고 어떻게 내려올꺼냐, 뭐 이런 것이 나의 기도제목이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
> [연구 참여자 8]
>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하고 찾아 봤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구요.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 … 노인 대접하는 게 배려가 아니구, 섬김과 배려가 꼭 젊은이들이 해야 되는 건가? 아니겠죠. 성숙한 사람이라면 노인이더라도 봉사하고 섬기는 게 맞는 거 같아요. … … 매일 밤 자기 전에 죽음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준비에 대해 기도해요. 신앙 안에서 바로서는 모습으로 본을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닮아가는 신앙인으로 남고 싶어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 생각해요.*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비록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었지만, 그들의

삶이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삶이었다고 스스로 돌아보고, 자손들에게 평가되고 기억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관찰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인 노년세대에게 그들의 생에 대한 마무리를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참여자들은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기억되고,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주길 바라는 욕구와 의미들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 [연구 참여자 3]
>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
>
> [연구 참여자 7]
> *신앙인으로서 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신앙적 유산을 자손들에게 어떻게 교훈을 남기고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가 필요해요. (중략) 평생 신앙 생활하신 어른들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왔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 … 교회의 역사나 교인들의 역사가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사랑의 나눔'에다가 직분자들의 스토리나 간증을 잘 실었으면 좋겠어요.*[35] *… … 저는 저 개인적인 삶을 정리해서 남길만한 사람이 못되니까 우리 교회의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거나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은 잘 기억하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해요.*
>
> [연구 참여자 8]
> *노인이 되어서 자선을 쓰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삶 가운데 잘못했던 것을 쭈욱 적어 참회록을 쓰는 것이 맞다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인간인데 그렇게 잘못한 것을 덮어 놓고 자기 자랑꺼리만 쓴다는 것은 노인들의 잘못된 생각인 거 같아요.*
>
> [연구 참여자 9]
> *자식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부모로 기억되고 싶지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나는 노년세대가 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이 신앙과 일치되어가는 성숙함을 이루길 바라고, 그들의 지나온 삶에 대한 회상과 정리를 통해 아름답게 마무리 되어가길 바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심층 면담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바람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으며, 노년세대의 지나온 자기 삶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교회의 목회와 노년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프로그램들이 그러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회적 돌봄의 과제로 여겨졌다.

---

[35] '사랑의 나눔은' S 교회에서 발간하는 신앙문집으로 교인들의 신앙고백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리하면, 나는 노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을 통해 얻어진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들은 신앙생활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들이 원하는 신앙교육은 무엇인지, 그리고 생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노년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크게 3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 교회 안에서 노년세대가 소외와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노년세대가 바라고 원하는 신앙교육 내용은 성서교육이라는 것이다. 셋째,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노년세대가 원하는 것은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자아 통합을 통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결과들을 기반으로 노년세대가 겪고 있는 상황과 과제들을 위한 목회신학적인 방향과 변화와 치유를 이루어낼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들에 대해 다음 장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Chapter IV
논의 (Discussion)

심층 면담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는 교회 안에서 소외 당하고 있는 노년세대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고 교회가 정한 연한이 되어 은퇴하게 됨으로 겪게 되는 관계의 상실, 역할의 상실로 인하여 위기를 맞고 있었다. 노인은 과거 전통사회로부터 존경과 보호의 대상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소외와 배제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노인의 고독과 소외의 문제는 이 사회에 대두되는 필연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면담을 통해서도 나타난 것처럼, 노년세대는 교회에서 정년이 되어 은퇴를 경험 하면서 자신들의 역할에서 밀려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척 당하고 거절 당했다고 느끼게 된다. 그 동안 주체적으로 익숙하게 해오던 일에서 배제되면서 노년세대는 상실감을 느끼고 고독과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이 시기에는 자녀들의 출가, 배우자의 죽음,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나약함이 더해지는 시기로 정신적 지지대를 잃어버리게 되고 대신 심리적 고독감에 빠져들기도 한다. 그들은 교회에서 은퇴 후, 젊은 세대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상호 역할의 부적응으로 인하여 세대간의 갈등과 그로 인한 고립감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경험은 노년세대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쓸모 없어진 듯한 자신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상실감과 소외의 경험으로 인하여 노년세대는 점점 교회에서 주변인이 되어 가고 있다. 그들은 교회 구성원 중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중심이 아닌 주변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몰라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어디에도 속할 수 없고,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그저 조용히 기도나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노년세대를 교회 안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노년의 미덕이라 여기며 교회에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억압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조언은 그저 잔소리가 되니 뒤로 물러가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나는 이러한 노년세대를 위해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목회자는 그들을 향한 어떤 관점과 방향을 가지며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환대 신학을 토대로 이 장에서 논의하였다.

둘째, 노년세대의 신앙교육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신앙교육의 내용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거나, 성서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심층 면담을 통해 만난 연구 참여자들은 노년의 삶이 모두 완숙하고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끊임없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성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신이 더욱 성숙하고 완숙해 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에 나는 노년세대에게 필요한 성서교육의 의미와 그 내용과 주제를 담은 실천적 프로그램인 '희망대학 성경학교'를 이 장에서 소개하였다.

셋째, 노년세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그들의 삶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인생으로 기억되기 바라며 성숙한 노년을 위한 자아 통합의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나는 노년세대가 이루고자 하는 자아 통합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들이 자아 통합을 위하여 자신들의 지나온 삶을 회상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정리하면서 절망이 아닌 통합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적 프로그램으로 '자아 통합을 위한 글쓰기'를 제안하였다.

A. 서발턴이 되어버린 노년세대를 위한 목회 (The Old Generation Becomes Subaltern)

1. 서발턴 (Subaltern)

면담에 참여했던 노년세대는 은퇴 후, 교회의 주된 인물로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던 존재감은 사라지고,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중심이 아닌 주변으로 내 몰리는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노년세대는 스스로가 쓸모 없는 삶이 되었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패배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그들을 주변인으로 내 몰았다. 그렇게 주변인이 된 노년세대는 침묵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노년세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노인이 되고, 은퇴를 했다는 이유로 소외와 상실감을 느끼며 주변부로 밀려난 서발턴(subaltern)이 되었던 것이다.[36]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은 서발턴을

---

[36]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역사용어사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957–60. 서발턴이란 말은 영어권에서 17세기에 영국 군대 내의 하급 사관 혹은 낮은 서열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용어는 국내에서 '하층민' 혹은 '하위 주체'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람시(Antonio Gramsci)는 자신의

'영향력 있는 정치 담론들로 미리 정의되지 않은 다양한 종속적 처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한다.[37] 또 서발턴은 그 어떤 지배에서도 벗어나 독자적인 목소리로 말할 수 있고, 그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의식을 드러낼 수 있는 자율적인 역사 주체로서의 재현(representation)은 불가능하다고 스피박은 주장한다.[38]

그렇다면 나는 과연 S 교회 안에서 서발턴이 되어버린 노년세대를 위해 어떤 실천신학적인 접근과 목회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스피박이 말한 것처럼, 노년세대는 더 이상 나서질 못하고 있으며 말하지 못하고 있다. "어른이 되면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한 연구 참여자의 씁쓸한 고백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발턴이 되어버린 노년세대를 향한 목회적 돌봄과 신학적 반성이 필요함을 고찰해본다.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노년세대는 자신들이 나이가 들고 늙어서 노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자신의 노화나 죽음에 대해 선뜻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거부감에서 나오는 부정이겠지만 그들이 노인이 된 것은 모두가 바라고 원하여 얻은 것이 아닐 것이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단계의 지점이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노인이 됨으로 인해 파생된 소외와 상실 그리고 주변인으로 밀려나 서발턴이 되어 버린 상황 역시 그들이 자원한 것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된 고백처럼 그들이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준 것은 우리가 가진 제도와 상황 그리고 분위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노년세대는 아직도 일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의 의지와 함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능력 안의 일이라면 얼마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정년이 되면 은퇴를 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또, 그들을 대하는 젊은 세대들의 반응에서 노년세대를 향한 공경과 예우의 마음과 함께 무시와 배제의 마음도 공존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

*옥중수고*에서 패권을 장악하지 못한 집단이나 계급을 나타내는 말로 '서발턴'을 사용했다. 1980년대 인도의 서발턴 연구 집단은 그람시로부터 이 개념을 빌어와, 남아시아 사회에서의 종속-그것이 계급, 카스트, 연령, 젠더, 지위 또는 그 밖의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든-의 일반적인 속성을 가리키는 한 이름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37] Gayatri Spivak, *The Post-Colonial Critic 스피박의 대담*, trans. 이경순 (서울: 갈무리, 2006), 318.

[38] Gayatri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trans. 태혜숙 (서울: 그린비, 2013), 135.

것이다. 또한 노인이 되어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침묵이 덕이 되는 상황과 그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치부되는 것 역시 자신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의 따뜻하지 못한 시선일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노년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노년세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생긴다. 나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환대의 신학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2. 환대의 신학

환대는 기독교의 오래된 영성 형태이자 성서에서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므레 상수리나무 아래서 나그네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이 빵을 떼다가 부활한 예수를 보았음을 기억할 것이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는 무수한 구약의 율법들과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무의식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으니 나그네를 대접하기에 힘쓰라는 성서의 말씀을 만난다. 또 그런 주변부의 사람들과 늘 함께 하고 먹고 마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환대를 배운다.

러셀(Russell)은 "환대란 위기에 봉착한 이 세계를 치유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차이를 넘어서 연결하는 우리의 행동 속에 각인된 하나님의 환영을 실천하는 것이다"[39]라고 말한다. 그는 교회의 사명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세계를 돌보고 개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라 말한다. 그러면서 공정한 환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쪽 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의식을 치료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하나님의 행동들에 참여하기 위해서 차이를 넘어서 접촉함으로써 하나님의 환영하심을 실천하는 것이다."[40] 즉 가난, 불의, 고통이 만연한 오늘날의 세계에는 '배제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았음을 증언하고 실천하는 것이야 말로 분열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oikonomia) 이며, 그것이 바로 환대이다.[41]

환대를 실천하는 것은 교회의 주요한 사명과 관련 있다. 배제된 사람은 교회 밖, 저 먼 나라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이와 성별, 지식 수준,

---

[39] Russell, *공정한 환대*, 24.

[40] Russell, 156.

[41] Russell 은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를 "인류의 구원과 세상의 구제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활동"이라고 말하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선교'(Mission of God)라고 말한다.

경제적 소득, 사회적 위치 등 수 많은 요인들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내 몰리는 배제를 노년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노년세대를 위해 교회는 환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환대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그네 된 우리를 환영하셨으며, 우리를 환영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낯선 이들을 환대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성서 속에는 고아나 과부와 같이 공동체의 약자들을 환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사자를 환대한 이야기(창 18:1-15), 도피성 제도(출 21:13, 민 35:9-11),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인 '성소'(Sanctuary)에 대한 이야기(신 19:7-10), 너(이스라엘) 역시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으니 낯선 자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하신 이야기(출 23: 9), 엠마오 도상의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눅 24:13-35), 형제 중 가장 작은 자를 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예수의 약속(마 25:31-46),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떼어 놓을 수 없다고 말하는 바울의 가르침(롬 8:39), 나그네 대접에 소홀하지 말라는 히브리서의 가르침(히 13:2),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요한의 메시지(계 21:1-4) 등은 환대가 성서의 일관된 명령임을 알려준다.

이에 대해 존 쾨니그(John Koenig)도 인간성의 지고함과 심원함이 드러나 있는 신약성경에는 모든 차원의 환대가 집중적으로 발견된다고 말한다.[42] 소외 당하는 이들(혹은 주변인-marginal people) 사이에서의 예수의 식탁사역(table ministry)에 대해 공관복음서에 나타나는 두드러짐(prominence)을 통해 우리는 환대를 경험할 수 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식탁,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삭개오와 함께 하는 식탁들은 이런 환대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43]

교회 안에서 노년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주변부적 삶의 경험은 그들을 서발턴으로 만들고 있다. 그들은 분명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고 함께 나와 예배하며, 지금의 교회가 있게 한 주역이며, 아직도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경계와 벽으로 인해 서발턴과 주변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교회와 신학은 어느 누구도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는

---

[42] Koenig, *환대의 신학*, 19-20.

[43] Russell, *공정한 환대*, 48.

하나님의 환대를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그 환대를 모든 사람에게 특히 노인들에게 실천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다.

나는 쾨니그의 "모든 목회의 현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환대가 필수 불가결하다"[44]라는 말에 동의한다. 우리의 삶과 목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환대가 있을 때 사람들은 모든 경계를 허물고 모여들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환대 받은 이들은 자발적으로 그 공동체에 소속하게 되고, 그 공동체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다.

단일문화였던 한국의 문화가 다문화가 되면서 그 동안 감추어져 왔던 다양한 자기 주장들과 자기 문화들이 표출됨으로 인해 한국이라는 전체적인 공동체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이전의 방법으로 의견을 집중시키고, 공동체의 힘을 집약시키는 데 적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동체의 관계회복과 그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환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45] 이 프로젝트에서 논의 되고 있는 노인세대의 문제, 즉 나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뿐 아니라, 젠더(gender)의 차이, 소득의 차이 등 모든 차이와 차별 그리고 배제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분열된 공동체를 위해 환대의 개념과 신학 그리고 목회적 노력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환대의 목회를 위해 Russell 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교회의 목회는 낯선 자들과 동역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환영한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이고, 이리하여 사람들이 종교적 배경, 성별, 인종별, 그리고 종족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반자가 되기 혹은 코이노니아를 갖는 것은 우리의 세례의 선물이지, 하나의 계급, 인종, 성적 경향의 결과는 아닌 것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로부터 시작해서, 상처난 세계를 치유하기 위하여 교회의 목회와 선교에 참여하여 실제적인 차이를 초월하는 선물이다.[46]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 노년세대도 그리스도가 환대한 사람이 분명하다. 예수는 어린 아이뿐 아니라 나이든 노인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그들의 주변부의 삶의 자리 곳곳에 찾아가 그들을 환대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나이로 인한 차이와 배제로 중심에서 밀려나 주변인이 되어버린, 그래서 아무 말할 수 없는 서발턴이 된 노년세대를 환대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

[44] Koenig, *환대의 신학*, 10.
[45] Koenig, 11.
[46] Russell, *공정한 환대,* 48-49.

할 것이다.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환영할 때, 다양한 차원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갈등으로부터 야기했던 상처는 회복되며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일치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교회는 환대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노년세대를 바라보고, 노년세대를 지지하며 돌보아야 하는 바른 실천 목회적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 더불어 노년세대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환대의 대상임과 동시에 주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환대는 어느 누가 대상이 되고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이 실천을 위해 노년세대가 환대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 만이 아니라, 환대의 주체로서의 노년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 인식을 변화시켜가는 목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B. 노년세대를 위한 성서교육 (Biblical Education for the Old Generation)

교회는 노년세대로 하여금 보다 창조적인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 동안 S 교회는 노년세대에게 노년기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노인들의 관심사와 취미, 취업과 봉사를 위한 지식과 기술,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도 등에 관하여 교육해야 한다고 믿고 노년세대 교육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런 취지의 신앙교육을 받아 왔던 S 교회의 희망대학에 참여했던 연구 참여자들은 보다 성서적이고 신앙적인 내용의 신앙교육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심층 면담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본 프로젝트에서 성서는 노인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으며, 노인세대를 위한 성서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노년세대 성서교육의 대안으로 S 교회에서 진행했던 '희망대학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1. 노년세대를 위한 성서교육

성서시대에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여겨졌으며 백발은 인생의 면류관으로 존경을 받았다 (잠 16:31). 백발은 지혜를 상징하고 노인은 가르치며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주로 노인들로 구성되는 마을의 장로들은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었다. 노인을 존경하는 것은 곧 사회의 기본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요 나아가서 모든 질서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성서는 연결시키고 있다(레 19:32).

정태기는 "구약성서나 유대인의 전통에서 노년기는 구원의 희망을 향해 가는 시기요, 인간 성숙의 정점인 자기실현을 위한 안식년에 접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인간의 영을 깨끗하게 하는 고귀한 목적에 자신을 바치게 된다"[47]라고 말한다. 노년세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진리는 희망과 구원에서 올 수 밖에 없다. 희망과 구원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힘이고,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모든 사건의 핵심으로 나타난다. 정중호는 "노인의 상황은 분명 새롭고 특수한 상황이며 누구나 처음 겪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신학, 즉 노년이 되어 특수한 상황에서 듣는 하나님의 특수한 말씀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성서를 새롭게 해석하고 배우는 노력과 교육이 필요하다"[48]고 말하면서 노년세대를 위한 성서 교육의 근거를 주장한다.

노년세대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는 영적인 욕구를 지니기에 성서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하롤드 쾨닉(Harold G. Koenig)은 성서교육이 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본다:

> 노인들이 읽는 성경은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읽어 줄 수 있는 성경과 같은 것이다. 찬송가와 기도도 똑같고 어느 때에는 더 깊은 감동으로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기독교는 노인들을 위하여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연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점점 더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코자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교회는 노인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노인 성서교육을 시도해야 한다.[49]

아더 벡커(Arthur H. Becker)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노인들에게 필수적이고 그 어떤 연령층보다도 노년세대는 그들의 추억들과 묵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객관적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노년세대가 인간관계에서 점점 뒤로 밀리고 눈에 띄게 생산적인 친교를 할 수 없게 될 때, 그들은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자신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심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성서의 교육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보다 근본적이라 주장한다.[50] 그러므로 교회는 노년세대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성서적인 가르침과 의미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

[47] 정태기, *위기상담* (서울: 크리스찬 치유 목회 연구원, 1998), 232.

[48] 정중호, "성서와 노인교육," *복음과 교육* vol. 11 (June 1993): 21-22.

[49] Harold G. Koenig, *Aging and God: Spiritual Path Ways to Mental Health in Midlife and Later Years* (New York: The Haworth Pastoral Press, 1994), 238-91.

[50] Arthur H. Becker, *Ministry with Older Person: A Guide for Clergy and Congregations*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6), 175.

있도록 하는 신앙교육 특히 성서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이에 나는 S 교회에서 노년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중 성서교육 중심의 교육활동이었던 '희망대학 성경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통해 노년세대를 위한 성서교육의 실천적 프로그램으로 제시해 보았다.

2. S 교회 노년세대를 위한 '희망대학 성경학교'

S 교회에서는 노년세대에게 어린 시절 교회학교에서 경험했던 성경학교를 추억하며 70 세 이상의 노년세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대학 성경학교를 진행하였다. 무박 2 일 동안 S 교회의 각 교육부서실을 이용하여 약 60 여명의 인원이 참여하였다. 희망대학 성경학교의 일정과 진행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토요일		주일	
시간	프로그램	시간	일정
9:30~10:00	접수	~12:50	모이기
10:00~10:30	여는 예배	13:00~13:50	은빛말씀(분반공부)
10:30~11:00	날아오르다 (몸과 마음열기)	14:00~14:30	찬양
11:10~12:00	은빛말씀(분반공부)	14:30~15:00	닫는 예배(3부예배시) 시상식
12:00~13:00	점심식사	15:00~15:05	단체사진
13:10~15:40	은빛동행(코너학습)	15:05~	간식 및 귀가
15:45~	간식&마침기도(귀가)		

성경학교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은빛 말씀이라는 분반공부 시간이었다. 이는 성경공부 교재를 활용한 성서교육 프로그램이다.[51] 60 여명의 노인들이 조를 나누어 각 조마다 성경공부를

[51]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에서 발행한 노년 세대를 대상으로 제작된 '은빛세대 날아오르다'라는 성경공부 교재를 사용했다. 교재는 여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몸과 마음 열기(도입 부분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여는 단계), 함께 읽는 이야기(노년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이미지를 보면서 주제와 연결시키는 과정), 생각 나누기(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와 성경 말씀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위한 교사가 배정되었고, 분반공부 시간에 10 여명의 노인들로 이루어진 그룹을 대상으로 성경공부가 진행되었다.

분반공부 시간 이외에 은빛 동행이라는 코너학습으로 신앙과 성서의 주제에 따른 코너를 교회 곳곳에 마련하여, 각 조별로 코너를 돌며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은빛 동행 코너학습의 내용으로는 스트링 아트(미술영역), 내 삶의 노래와 찬양(음악영역), 힘을 모아(신체활동 영역), 축복의 통로(친교영역)가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많은 노년세대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부르며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성서교육에 참여하고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에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소감을 나누게 되었다. 또한 이 성경학교를 진행하기 위해 교회 안에 다른 세대들이 함께 헌신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 노년세대에게는 그들이 교회의 주변인이 아닌 주인공이 된 듯한 감정과 만족감을 얻게 되었다는 평가를 얻게 되었다. S 교회는 희망대학 성경학교를 통해 노년세대가 바라고 추구했던 성서 중심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교회 안에서 소외된 노년세대를 위해 교회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 준비하고 노년세대를 섬기는 과정을 통해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노년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에 있어서 노년세대를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노년세대를 교육의 주체로서의 인식 시키고, 교육을 담당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역시 상호 주체성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노년세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서교육의 주체로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신앙과 성서적 가르침의 내용을 전달하고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노년세대의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이들 역시 성서교육의 내용들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과정), 하나님의 말씀 듣기(성경 말씀에 대한 풀이를 통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과정), 내 삶의 가져오기(깨달은 것을 표현하고 생각과 마음에 새기는 과정), 함께 드리는 기도(배우고 나는 내용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과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각 과의 성서 내용은 1 과 전도서 3:11-13 을 통해 '노년의 때'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2 과 이사야 43:1-3 을 통해 노년기를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신앙적 관점을 세우도록 돕는다. 3 과 사도행전 11:22-26 을 통해 나에게 부여된 역할이 있음을 깨닫고 실천하도록 돕고, 4 과 시편 39:4-7 을 통해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은빛세대 날아오르다*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 2016) 참조.

C. 노년세대의 자아 통합을 위한 글쓰기 (Writing for Ego-integration of the Old Generation)

노년세대는 심층 면담을 통해 그들의 삶이 성서적이기를 원하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 특히 성서교육을 통해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길 원하고 있었다. 라이언(K. Brynolf Lyon)은 노화를 성장으로 보고 있으며, 성장의 과정으로서의 노화는 영적인 성장으로 규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52] 영적인 것들은 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노년세대가 겪고 있는 노년기는 노화의 시기가 아니라, 영적인 성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녀와 후손들에게 본이 되고 싶어하는 노년세대에게 나는 어떤 교육과 실천이 필요할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노년세대를 위해 교회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고 자기 성찰과 영적 성숙을 위한 자아 통합을 지향하는 신앙교육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노년기에 직면하는 심리 · 사회적 발달 과업을 자아 통합의 달성이라고 보는 에릭슨의 이론을 고찰해보고 자아 통합을 위한 신앙교육의 한 대안으로 자아 통합을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제시해보았다.

1. 자아 통합

노년기는 필연적으로 쇠퇴를 경험하며 다가올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임경수는 중년기를 지나 인생의 마지막 단계로 진입한 노년기에는 인생을 뒤돌아보며 이것을 통합해볼 수 있는 회상의 시간을 가지며 또 다른 세계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말한다.[53] 결국 노년세대는 쇠퇴와 죽음 앞에서 그들의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에릭슨은 노년기의 심리사회적 양식은 살아온 삶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고, 그의 삶을 돌아보며 얻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통합'으로 보았으며, 부정적인 결과를 '절망'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노년기를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보낼 수 있는 길은 노년기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극복하여 자아 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통합은 유아기부터 지금까지의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관조하고 회상해보는 것이다. 자신의

[52] K. Brynolf Lyon, *Toward a Practical Theology of Aging*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41-47.

[53] 임경수, *인간발달 이해와 기독교 상담* (서울: 학지사, 2013), 222.

인생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거의 이야기들을 수용하고, 비록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오늘의 내가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인생은 결국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이다.[54] 이러한 인생회고는 삶의 목적들을 찾아내고 확인하게 되고, 그 목적들을 현재의 가치와 관계에 연결시킴으로 자아 통합에 이를 때 성공적인 노화에 이른다고 본다.

에릭슨은 성공적 노화를 위한 종교적 기반을 정교하게 만들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는 주기 이론의 덕목을 신학적 덕목인 신앙, 희망, 자선 등과 연관시켰다.[55] 그래서 에릭슨이 말한 노년에서의 자아 통합에 대한 종교적 고찰에 대한 과업을 폴 틸리히(Paul Tillich)의 신학적 관점과 연관시켜 본다. 틸리히는 자아 통합을 이루는 능력은 즉,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총과 분리되어서는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더 큰 존재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짐,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유한하고 죄의 문제에 매어있는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만 온전하고 성숙한 자아의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틸리히의 관점으로 보면 결국 진정한 자아 통합의 과정은 기독교의 성화의 과정과 닮아있다.[56]

나는 에릭슨의 자아 통합에 대해 살펴보면서 S 교회 안에 있는 노년세대는 과연 자아 통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사회・심리학적인 분석과 접근으로써 노년기를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보낼 수 있는 길은 노년기의 절망감을 극복하여 자아 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 절망감은 노년세대가 나이 듦으로 인해 받게 되는 차별과 배제의 경험에서 나오고 있기도 했다. 이런 노년세대에게 어떤 방법으로 절망이 아닌 통합감을 맛보며 행복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게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S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년세대 신앙교육 프로그램인 희망대학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프로젝트의 연구 참여자인 노년세대가 참여하고 있는 희망대학의 프로그램들이 과연 이런 자아 통합감을 경험하게 하고 있는지 되돌아 보았다. 심층 면담을 분석하고

---

[54] 박순오, *잃어버린 자아정체감의 회복*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5), 19.
[55] Erickson, *Insight and Responsibility* (New York: W. W. Norton, 1964), 111-12.
[56] Paul Tillich, *Systemic Theology Vol. 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212.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 희망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노인들은 희망대학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내용들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었다.[57] 결국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신앙교육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유익한 내용들이어야 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노년기에 경험하고 이룩해야 하는 자아 통합, 즉 그들이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 보고,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희로애락의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고백들이 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제공해야 할 신앙교육 프로그램과 실천들이라 생각한다.

2. 자아 통합을 위한 글쓰기

에릭슨은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심리사회적 과제로 자아 통합(ego integrity)을 말한다. 인간은 노인이 되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이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었다고 인정하면 자아 통합을 이루었다고 하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었다고 여기게 되면 절망에 빠진다고 하였다.[58] 이와 같이 노년기에 인생에 대한 회고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김윤정은 노인은 회상을 통하여 노인들이 과거의 심리적 갈등이나 이루지 못한 소망 및 과업을 해결하고 생을 정리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좀더 구체적인 결과들을 살펴보면 첫째, 노년세대는 현재의 자손을 통하여 삶의 가치를 찾고 정체감을 확인한다고 한다. 이러한 점은 가족중심적인 한국의 문화적 속성을 반영한 태도이며, 이와 동시에 가정 내에서의 자녀와의 관계가 노년기의 자아 통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회상을 통해 지나간 삶을 수용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연구 대상자들이 자아 통합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성공적 노화에 이르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59]

심리학자들은 성인들이 인생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재편성된 과거, 인식된 현재 그리고 기대되는 미래를 통합하는 이야기를 만들고 내면화함으로써 자신들의 분산된 삶을 이해한다고 말한다. 인생이야기라는 주제는 기독교교육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이는 인생 이야기가

---

[57] Chapter Ⅲ의 B. 노인의 신앙교육 참조.

[58] Erikson,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London: W.W. Norton & Co, 1997), 61-65.

[59] 김윤정, "회상을 통한 우리나라 여자노인들의 일생과 자아 통합감," *노인복지연구* (December 2002), 207-31.

기독교교육에서 중요한 신학적 주제, 교육방법 그리고 교수방법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야기에는 인간학적 차원, 인식론적 차원 그리고 신앙적 차원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인간학적 차원'은 기독교교육이 그 자체로 '이야기 형성과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교육은 '이야기하기', '이야기 해석하기', '이야기와 삶을 확장하기'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야기는 기독교교육의 교수방법으로서만이 아니라, 기독교교육방법론으로 구체적이고 상황 관련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면서, 성경 이야기, 신앙공동체 이야기, 개인의 삶의 이야기가 만나게 되는 교차점이 기독교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60]

이와 같이 심리학과 노년학 분야에서의 인생이야기에 대한 연구 결과들과 기독교교육 분야에서의 이야기에 대한 연구들은 기독교교육에서 인생이야기에 대한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인생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인생회고와 노인의 자서전쓰기 프로그램이 효과적임을 증명한 것이다.

노인을 위한 자서전쓰기 프로그램은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회상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자아 통합감을 이룩하도록 돕고자 개발된 것이다. 이렇게 노인들이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는 것은 심리학 분야에서 인생이야기라는 중요한 주제로 연구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기독교교육 분야에서도 신앙교육과 신학에서 이야기의 중요성이 이미 언급 되었다.[61]

이에 본 프로젝트의 실천적 대안으로서 노년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자서전쓰기를 제안해보았다. 자서전쓰기가 노인의 자아 존중감, 자아 통합감, 삶의 의미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은 이미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증명되어 왔다. 자아 존중감, 자아 통합감, 삶의 의미의 향상은 신앙교육의 중요한 주제가 되며, 이러한 점에서 구체적인 노인 자서전쓰기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서전쓰기는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노년세대가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고 이를 자서전 형식의 글쓰기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

[60] 양금희, "이야기의 기독교교육적 차원," *기독교교육논총* vol. 23 (January 2010), 181-211.

[61] 오경석, "교회 노인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자서전쓰기 모형 개발," *기독교교육정보* vol. 45 (June 2015), 205.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자아 통합감을 이룩하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자서전쓰기 프로그램의 모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7. 교회 노인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자서전쓰기 모형〉[62]

회기(주)	회기별 주제	세부내용
1	오리엔테이션	집단프로그램의 목적 및 일정안내 집단의 목적 및 집단 규칙 합의 진행자/참가자 소개
2	인생 그래프	인생의 주요사건 경험, 관계, 장소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의 좋았던 나빴던 경험
3	꿈과 직업	꿈과 직업의 의미 돈의 역할
4	결혼/성/건강	결혼의 의미 성 역할, 성 정체성 건강, 신체상
5	가족 1	가족의 의미 / 자식의 의미 남편/아내와의 관계, 경험
6	가족 2	손자의 의미, 경험, 주요 사건 친가/시댁과의 관계, 경험
7	사랑/미움	사랑했던 사람, 장소, 물건 미워했던 사람, 장소, 물건 용서와 화해
8	죽음/영원	죽음에 대한 경험 죽음의 의미 사후세계

[62] 자서전쓰기 프로그램은 12 주(회기)에 걸쳐 제시된 주제에 대해 각자의 삶에 대해 회고하고 그것에 대한 글쓰기를 진행한다. 이는 생의 시작에서부터 성장, 변화, 가족, 신앙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노년세대의 마무리를 글로 표현해보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활동이다.

9	신앙	믿음의 의미, 경험 하나님과 나 신앙과 삶
10	인생의 의미	인생의 의미 꿈/좌절 인생목표/못다 이룬 꿈
11	미래	남은 생에 대한 희망/두려움 남기고 싶은 말, 물건, 유산
12	평가회	총정리 평가회

나는 심층 면담을 통해 노년세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노인이 되길 바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삶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 줄 수 있는 삶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 보고 정리하는 것을 통하여 생에 대한 아름다운 마무리와 자신의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자아 통합적 삶을 바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노년세대의 이러한 욕구를 반영하여 교회 안에서 노년세대에게 자서전쓰기를 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사회심리학자들이나 기독교교육자들의 주장처럼, 자서전쓰기는 노년의 삶을 마무리하고 그 동안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지나간 삶을 수용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임과 함께 자아 통합의 경험과 그 의미들을 부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실제로 S 교회 노년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프로그램인 희망대학에서 노인들에게 자서전쓰기 모형에서 제시한 주제를 가지고 글쓰기를 시행해 보았다. 위에서 열거한 주제들을 매 주마다 제시해주고 관련한 내용들로 노년세대에게 글을 쓰게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된 글들을 한 데 모아 그들에게 자서전 형식의 책자로 전달했을 때, 노년세대는 그들의 삶을 다시금 회고함으로 자신의 삶에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는 한 과정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얻게 되었다. 또한 자서전 형식의 기록물들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보람과 그 내용들을 잘 간직하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꼭 전하겠다는 소감을 듣게 되었다.

노년세대에게 그들의 삶을 회상하고, 생에 대한 마무리를 다양한 주제로 성찰해보는 자서전쓰기는 노년세대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와 자아 통합감을 주기에 충분한 신앙교육 프로그램과 실천이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고령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 대한 기억이 분명치 않거나, 그 내용을 글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년세대에게는 자서전쓰기를 통한 자아 통합의 경험과 효과를 기대하지 못 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글쓰기가 어려운 노년세대에게는 음성 녹음이나 영상 녹화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회고하여 자서전적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63]

---

[63] 자서전쓰기 프로그램의 한계와 내용의 보충은 본 프로젝트의 구술 시험에서 지도 교수가 언급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Chapter V
결론 (Conclusion)

현대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한국 교회에서 노년세대의 목회는 중요한 관심이 되고 있다. 나는 S교회 노년세대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교회 안에서 소외 받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에 관심했다. 이 프로젝트는 그런 의미에서 나의 노년세대 목회의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나는 노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들을 위해 나는 어떤 실천적 목회를 통하여 노년세대에게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해주어야 할지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게 가지고 있었던 터라 노인에 대한 문제는 나의 목회에 있어서 늘 지니고 있는 숙제와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 숙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이라는 배움과 도전의 장에서 질적 연구라는 도구를 통하여 진행한 이 프로젝트는 그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아주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프로젝트를 위한 질적 연구는 나에게 쉽지 않았다. 아니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부딪치고 있는 문제와 갈등, 상처와 회복을 위한 목회적 노력과 학문적 연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놀라운 도구였음을 고백하게 된다.

질적 연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기존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선입관과 굳어져 버린 목회 관점에 대한 변혁을 일으킨다. 질적 연구는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위계 관계를 해체하고 교인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한다. 그리고 그 내용에 공감함으로써 교인들이 바라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게 된다.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교인들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목회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었다.

나는 노년세대에 대한 목회적 관심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연구의 주제나 기대하는 결과가 조금은 상투적이고 이미 선행된 연구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나 스스로가 얻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우선 노년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지금껏 내가 보아왔던 노년세대가 더 가까이 느껴졌고, 그들이 왜 그런 생각과 행동들로 살아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종교적 변화에 대해

나는 주목하기 시작했다.

나는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현상학적 방법 중 심층 면담의 내용과 분석을 통해 중요한 세 가지를 발견했다. 첫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주변부로 밀려나 서발턴이 된 노년세대이다. 둘째는 노년세대가 바라고 원하는 신앙교육은 다름 아닌 성서교육이었다. 셋째는 노년세대는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성숙한 삶과 신앙을 이루는 자아 통합을 꿈꾼다는 것이었다.

가부장적 문화에 길들여져 살아왔던 시대에 그들은 주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모습, 위계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등이 그들 깊이 자리 잡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은퇴한 노인들은 교회 안에서 예우와 공경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노년세대였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주변인이 되었다고 고백했고 설 자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교회의 주역으로 봉사하고 헌신했던 존재감은 사라지고, 주변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그들은 위기감과 소외를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위기와 소외를 느끼면서도 많은 노년세대가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에 더 참여하기를 원하고 친밀함을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64] 하지만 교회의 젊은 세대들은 그들과 함께 일하기 원치 않았으며 노년세대를 무시하며 함께 일하는 자리에서 그들을 배제했다는 사실도 간과할는 없는 사실이다.

노년세대는 이러한 갈등에 대해 그저 침묵하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나는 마치 이방인처럼, 주변부로 밀려난 주변인처럼, 서발턴처럼 살아가는 노년세대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하기를 바란다. 나는 교회 안에서 노화와 은퇴로 인해 자신들의 설 자리를 잃고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나 교회의 서발턴이 되어버린 노인세대를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의 적극적이고 무조건적인 환대를 제안하는 목회적 관점과 신학이 필요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의 환영을 받는 다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환영을 체현하고자 한다.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가까이 있지만 나이 듦으로 인해 소외 당하고 배제 당하는 노인들을 돌보면서, 우리는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 놀라운 일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은 무조건적인 환대에서부터 비롯된다.

---

[64] Matuias Irle, *Alterwerden fur Anfanger 노인은 늙지 않는다*, trans. 김태희 (서울: 민음사, 2015), 171.

덧붙여 만일 우리가 변두리 인생들을 상대로 그들의 계급, 인종, 혹은 성별 때문에 장벽을 세우는 데 시간을 보낸다면, 환대를 실천하는 것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환대가 내 주변의 문제에만 국한시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은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우리가 정의의 실현과 변혁을 위한 공통 논제들을 찾아서 그 차이들을 통하여 일하는 방법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면 긴장 속의 일치로부터 환대 속의 일치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공정한 환대가 이 세상 가득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교회의 노년세대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싶은 신앙교육의 내용은 다름 아닌 신앙과 성서에 대한 내용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일반 사회에서나 복지 차원의 노인 교육 프로그램은 문화센터나 TV와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다. 교회가 그러한 정보 전달 수준의 노인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신앙적이고 성서적인 내용들로 노년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노년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은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성서적인 가르침과 의미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신앙과 성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노년세대의 신앙생활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노년세대를 위한 성서 교육 교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년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은 그들의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성숙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아 통합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발견한다. 노년세대는 "이제 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성숙한 노년,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는 목회자로서 노년세대의 이러한 고백이 참 반갑고, 소망이 되는 일이었다. 그들에게 성숙한 노년과 신앙과 삶의 일치를 간구하는 신앙인이라는 목표가 발견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게 된 커다란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노년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은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통합과 성숙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이런 자아 통합을 통해서 노년세대는 삶을 의미 있고 지혜롭게 영위하게 되며, 노년의 시기에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들, 특히 죽음에 대한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노년세대가 경험하고 이룩해야 하는 자아 통합은 그들이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 보면서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희로애락의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고백들이 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가 노년세대에게 제공해야 할 신앙교육이라 여겨진다. 그리하여 노년의 자아 통합을 위한 신앙교육의 일환으로 자서전쓰기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는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고 이를 자서전 형식의 글쓰기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자아 통합감을 경험하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번역되어 출간된 에릭슨의 *The Life Cycle Completed* 에서 그는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아의 완성은 노년의 초월(Gerotranscendence)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65] 사실, 초월은 자유롭게 사용하기엔 조금 조심스러운 단어이다. 사전적으로 '초월하다'라는 단어에는 '한계를 뛰어넘다, 탁월하다, 능가하다 또는 만물과 시간을 넘어서다' 라는 의미가 있다. 초월은 그 자체가 종교적 영역에 있으며 이 단어는 모든 진정한 신앙인의 희망과 기대를 표현하면서 인간의 지식을 전달하는 영역에 두루 걸쳐 있는 것이다.[66] 나는 이 노년의 초월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다. 노년의 초월에 도달했다는 것은 세상과 시간에서 벗어나 그것을 능가하고 뛰어넘은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일 것이다. 틸리히의 말처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나를 받아들이고 진정한 자아 통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노년세대를 위한 목회가 이 프로젝트 한 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결국 목회는 러셀이 말하는 공정한 환대로 가득한 세상을 위해서는 낯선 이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환영을 체현해야 하며, 에릭슨이 말하는 자아 통합, 그리고 완성과 지혜를 이루기 위한 과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초월로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살아가도록 돕는 목회 돌봄이 아닌가 싶다.

나도 언젠가 늙어 노인이 된다. 그리고 그 삶의 속도는 느려져도 변화와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화의 정도와 속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노년기에 이르면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종교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즉 노화 현상으로 모든 인류가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인생의 한 과정으로 받아 들이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와 새로운 역할에 대하여 적응하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노년기의 신앙교육은 수동적이고 경직되기 쉬운 노년기의 특성을 가진 노인들의 삶의 자세를 변화시키고, 노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65] Erikson, *The Life Cycle Completed*, 114.
[66] Erikson, 124.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야 한다.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대안적인 교육프로그램들과 실천들을 통해 S교회 노년세대가 교회 공동체의 환대를 경험하며 인생의 모든 영역과 문제를 담대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바란다. 또한 그들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며, 자아가 통합되고 지혜와 완성 그리고 초월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부록 A: 연구 참여 동의서

(Appendix A: Informed Consent Form)

저는 미국 켈리포니아주에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1325 N. College Ave., Claremont, CA 91711) 목회학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옥재호 목사입니다. 저는 '노년세대를 위한 대안적 신앙교육 실천들과 환대적 목회 관점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의 신암교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원에서 실천신학을 담당하시는 김남중 교수님의 지도 아래 수행되고 있습니다. 논문과 관련하여 교수님과 연락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메일(njkim@cst.edu)로 연락하시거나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신다면, 귀하는 인터뷰에 약 30분에서 한 시간 가량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 진행과정 동안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고 필사될 것입니다. 녹음되는 모든 내용과 필사본은 논문 연구에만 사용될 것이며, 그 이외의 어떤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뷰의 내용이 학술 자료로 이용되고 책으로 출간 시에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고,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는 유출하지 않은 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할 것입니다.

귀하는 연구 참여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이름, 이메일, 다른 개인적인 정보는 연구자료가 수집되는 기간 동안만 보관 되고 연구 종료 후 폐기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성함과 개인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기재함으로써 귀하의 권익과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연구 참여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귀하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인터뷰 도중 잠시 쉬거나 녹음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느 때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 철회는 귀하가 가지고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연구 참여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참여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이 논문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서 교회의 노년세대의 신앙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면담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은 노년세대 비중이 높아지는 한국 교회의 신앙교육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노년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 목회적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와 관련한 질문이 있거나 귀하의 이메일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면 연구

자 옥재호 목사의 전화번호 ***-***-**** 혹은 이메일 mr.ok@hanmail.net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 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아 왔으며 이 연구의 연구번호는 (2019-04)입니다.

만약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이 연구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기관윤리 심사위원회 회장, 김두영 박사의 연락처인 ***-***-**** 혹은 viastar@hanmail.net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익명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 참여자의 서명

나는 위에 설명된 정보를 읽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사본을 받았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참여자의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자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자의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

부록 B: 지오르지(Giorgi)자료 분석 결과: 의미단위, 주제 및 구성요소

(Appendix B: Data Analysis Based on Giorgi's Theory)

의미단위의 요약	주제	구성 요소	범주
1.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 2.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 3. 노인이 되어 이제 쓸모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생각 4. 남에게 패가 되는 인생이라는 생각 5.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모습 6. 교회 안에서 존재감이 없어졌다는 생각 7. 나이 들어 할 일이 없고 봉사할 수 없다는 생각 8. 노인은 침묵해야 한다는 생각 9. 젊은 세대들과 어울리는 게 힘들다는 생각	1. 노인이 되어 나약해진 모습을 본다. 2. 은퇴 후 교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 3. 나서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노인이 되었다. 4.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는데 어려움(갈등)이 있다.	1. 교회 안에서소외 당하는 노년세대 2. 환대 받지 못하는 노년세대	A. 노년 세대의 소외

의미단위의 요약	주제	구성 요소	범주
1. 전통적인 신앙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 2. 교육내용 중 신앙이나 성경에 관한 것에 더 관심이 있다. 3. 생의 마무리를 신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다는 생각 4. 노년세대의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생각 5. 노인들에게 기초신앙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 6. 문화와 상식적인 내용은 TV나 인터넷으로도 배울 수 있다는 생각 7. 감동적인 성서 이야기가 더 유익하다는 생각	1. 신앙적이고 성서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2. 일반 상식이나 문화에 대한 강의는 교회 밖에서도 들을 수 있다. 3.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 지속적인 신앙교육과 성서교육 2. 영적 성숙을 위한 신앙교육	B. 노년세대의 신앙교육

의미단위의 요약	주제	구성 요소	범주
1. 신앙과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2.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노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3.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 4.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하는 성숙한 노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5.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고 격려해주어야 한다는 생각 6.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 7.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	1.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본이 되는 노년 2. 생에 대한 마무리 3. 자기 성찰과 영적 성숙이 필요한 시기 4. 지나온 자기 삶에 대한 정리	1.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삶 2. 성숙한 노년	C. 노년세대의 자아 통합

부록 C: S 교회 희망대학(노인 신앙교육프로그램) 커리큘럼

(Appendix C: S Church's The Old Generation Christian Education Curriculum)

(2016년 11~12기)

년 도	월 일	강 좌 명	구 분
(2016 년) 11 기	3 월 6 일	봄이 오는 소리	음악활동
	3 월 20 일	중국의 미래와 한반도	시사교양
	4 월 3 일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만들기 활동
	4 월 17 일	우리 고전 다시 보기(2)	시사교양
	5 월 1 일	흥겨운 우리 가락	음악활동
	5 월 15 일	나를 살리는 두뇌-건강 음식	건강
	6 월 5 일	워십댄스 (하나님께 드리는 몸찬양)	신체활동
	6 월 19 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노년	신앙
(2016 년) 12 기	9 월 4 일	실버 레크레이션	신체활동
	9 월 18 일	가을 그리고 나, 아름다운 색의 여정	시사교양
	9 월 29 일	가을 나들이	신체활동
	10 월 2 일	우리 고전 다시보기(3)	시사교양
	11 월 6 일	"왜 사드인가?"	시사교양
	11 월 20 일	생활영어	시사교양
	12 월 4 일	잠언으로 바로 서는 인생	신앙

(2017년 13~14기)

년 도	월 일	강 좌 명	구 분
(2017 년) 13 기	3 월 5 일	새 봄을 기다리며	음악활동
	3 월 19 일	중국과 중국인	시사교양
	4 월 2 일	노인성 질환	건강
	4 월 16 일	영화 감상	문화활동
	5 월 7 일	동구릉 이야기	신체활동
	5 월 21 일	채식 브라우니	만들기 활동
	6 월 4 일	바른 자세 바른 걸음	신체활동
	6 월 18 일	꿈꾸는 희망대학	신앙
(2017 년) 14 기	9 월 3 일	북극의 눈물, 우리들의 노력	시사교양
	9 월 23-24 일	희망대학 성경학교 〈은빛 세대 날아오르다〉	신앙
	9 월 28 일	가을 야외모임	신체활동
	10 월 1 일	함께 세워가는 나라, 국방 정책 이야기	시사교양
	10 월 15 일	미술로 만나는 나와 우리	시사교양
	11 월 19 일	성지순례 이야기	신앙
	12 월 3 일	편지 쓰기	문화활동

(2018년 15~16기)

년 도	월 일	강 좌 명	구 분
(2018년) 15기	3월 4일	예수님의 비유, 복음으로 읽기	신앙
	3월 18일	찬송하는 사람들	음악활동
	4월 1일	죽음을 극복하는 삶	건강
	4월 15일	화폐와 가상화폐	시사교양
	5월 6일	북한 핵에 관한 이해	시사교양
	5월 20일	스트레칭, 포크 댄스	신체활동
	6월 3일	우리 주변의 “꽃” 이야기	시사교양
	6월 17일	주홍글씨(자)	시사교양
(2018년) 16기	9월 2일	[신앙 강좌] 빛으로 이어지는 길	신앙
	9월 11일(화)	가을 야외모임	신체활동
	9월 16일	우리 고전 다시보기 [4]	시사교양
	10월 7일	이웃 나라, 중국 이해하기	시사교양
	10월 21일	죽음을 기억하라!	건강
	11월 4일	희망 오케스트라 [1]	음악활동
	11월 18일	희망 오케스트라 [2]	음악활동

참고문헌
(Bibliography)

1 차 자료 (Primary Resource)

[한서]

김영천. *질적 연구방법론 I : Bricoleur*.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______. *질적 연구방법론Ⅱ :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박순오. *잃어버린 자아 정체감의 회복*.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5.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역사용어사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설은주. *고령화 시대의 노인 목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5.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and 김한별. *질적 연구 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2018.

임경수. *인간발달 이해와 기독교 상담*. 서울: 학지사, 2013.

정태기. *위기상담*. 서울: 크리스찬 치유 목회 연구원, 1998.

추부길. *가정사역닷컴*. 서울: 가정사역연구소, 2002.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제 104 회 총회보고서*.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2019.

___________________. *헌법*.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출판사, 2013.

[영서]

Becker, Arthur H. *Ministry with Older Person: A Guide for Clergy and Congregations*.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6.

Erikson, Erik H. *Insight and Responsibility*. New York: W. W. Norton, 1964.

Koenig, Harold G. *Aging and God: Spiritual Path Ways to Mental Health in Midlife and Later Years*. New York: The Haworth Pastoral Press, 1994.

Lyon, K. Brynolf. *Toward a Practical Theology of Aging*.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Tillich, Paul. *Systemic Theology Vol. 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번역서]

Erikson, Erik H. *The Life Cycle Completed: Extended Version 인생의 아홉단계*. Translated by 송제훈. 서울: 교양인, 2019.

Irle, Matuias. *Alterwerden fur Anfanger 노인은 늙지 않는다*. Translate by 김태희. 서울: 민음사, 2015.

Kimble, Melvin A., Susan H. McFadden, James W. Ellor, and James J. Seeber. *Aging, Spirituality, and Religion 노화, 영성, 종교*. Translated by 노인사목연구위원회. 서울: 소화, 2011.

King, Nigel., and Christine Horrocks. *Interviews in Qualitative Research 질적 연구에서의 인터뷰*. Translated by 김미영, 김려화, 박금주, and 지은주. 서울: 현문사, 2013.

Koenig, John. *New Testament Hospitality 환대의 신학*. Translated by 김기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Russell, Letty M. *Just Hospitality: 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공정한 환대*. Translated by 여금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______________. *기독교교육의 새 전망*. Translated by 정웅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Spivak, Gayatri. *Can the Subaltern Speak?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Translated by 태혜숙. 서울: 그린비, 2013.

_____________. *The Post-Colonial Critic 스피박의 대담*. Translated by 이경순. 서울: 갈무리, 2006.

[저널 및 학위논문]

김윤정. "회상을 통한 우리나라 여자노인들의 일생과 자아 통합감." *노인복지연구* (December 2002), 207-31.

양금희. "이야기의 기독교교육적 차원." *기독교교육논총* vol. 23 (January 2010), 181-211.

양한나, 정진욱, and 김연수, "장애인의 수중운동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Giorgi 의 기술적 현상학 방법의 적용." *한국특수체육학회지* vol. 16 no. 2 (June 2008): 225-50.

오경석. "교회 노인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자서전쓰기 모형 개발." *기독교교육정보* vol. 45 (June 2015): 203-25.

이정은. "노인의 상실감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PhD diss., 청주대학교 대학원, 2014.

정중호. "성서와 노인교육." *복음과 교육* vol. 11 (June 1993): 21-22.

[웹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Accessed November 19, 2019.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두산백과. “고령화사회.” Accessed December 17, 2019.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49722.

정창일 and 박재찬. “교회의 허리 ‘3040 세례교인’ 급감.”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November 8, 201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13037.

통계청. “대한민국 100 대 지표 고령인구비율.” Accessed November 19, 2019. http://kosis.kr/conts/nsportalStats/nsportalStats_0102Body.jsp;jsessionid=12slfcaG1wh8LmX97SE1hyouQGJ3UGAh1dypiTsRx8Mrnr1m4C37lqPaGnhOkmQK.STAT_SIGA2_servlet_engine4?menuId=10&NUM=1014&cntUpdate=Y.

______. “대한민국 100 대 지표 노령화 지수.” Accessed November 19, 2019. http://kosis.kr/conts/nsportalStats/nsportalStats_0102Body.jsp?menuId=10&NUM=1016&searchKeyword=&freq=&cntUpdate=Y.

2 차 자료 (Secondary Resource)

[한서]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김태련. *발달 심리학.* 서울: 박영사, 1998.

노경묵. *노년의 삶과 성경적 상담.*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모선희, 김형수, and 유성호. *현대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2005.

박상철. *노인의 사회역할 상실에 따른 대안적 교육목회.*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양 춘. *청소년 문제와 노인 문제.* 서울: 정음사, 1984.

윤　진. *성인 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8.

이정효. *기독교 노인교육*.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2.

이호선. *노인상담*. 서울: 학지사, 2009.

정정숙. *성경적 가정사역.* 서울: 도서출판베다니, 1994.

한국노인학회. *노년학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2001.

[번역서]

Borradori, Giovanna. *Philosophy in a time of Terror: Dialogues with Jurgen Habermas and Jacques Derrida 테러시대의 철학: 하버마스, 데리다와의 대화.* Translated by 손성철, 김은주, and 김준성.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Derrida, Jacques. *De l'hospitalite 환대에 대하여.* Translated by 남수인. 서울: 동문선 현대신서, 2016.

Erikson, Erik H. *Childhood and Society 아동과 사회.* Translated by 윤진 and 김인경.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1988.

[저널]

김애령. "다른 목소리 듣기: 말하는 주체와 들리지 않는 이방성." *한국여성철학* no. 17 (May 2012): 23-52.

안미영. "교회노인교육을 위한 노인통합교육과정의 개념화." *기독교교육정보* no. 1 (August 2003): 145-69.

이정효. "한국기독교 노인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vol. 9 (May 2009): 43-86.

전영국.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면담 및 심층 면담에 관한 비교 고찰." *열린교육연구* vol. 25, no. 1 (February 2017): 147-68.

[학위논문]

박성민. “사회적 혐오를 극복하기 위한 기독교윤리적 고찰.” MDiv thesis,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9.

배호진. “노인목회의 필요성과 교회적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MDiv thesis, 총신대학교 대학원, 2002.

[웹사이트]

김동주. “키오스크의 그늘③ 차별 받는 노인 및 취약계층.” *메디컬투데이*. November 21, 2019.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70683.

서한기. “노년층 정신건강 심각. 우울증 환자 10명중 4명은 60세 이상.” *연합뉴스*. October 2, 2019. https://news.v.daum.net/v/20191002060334667?f.